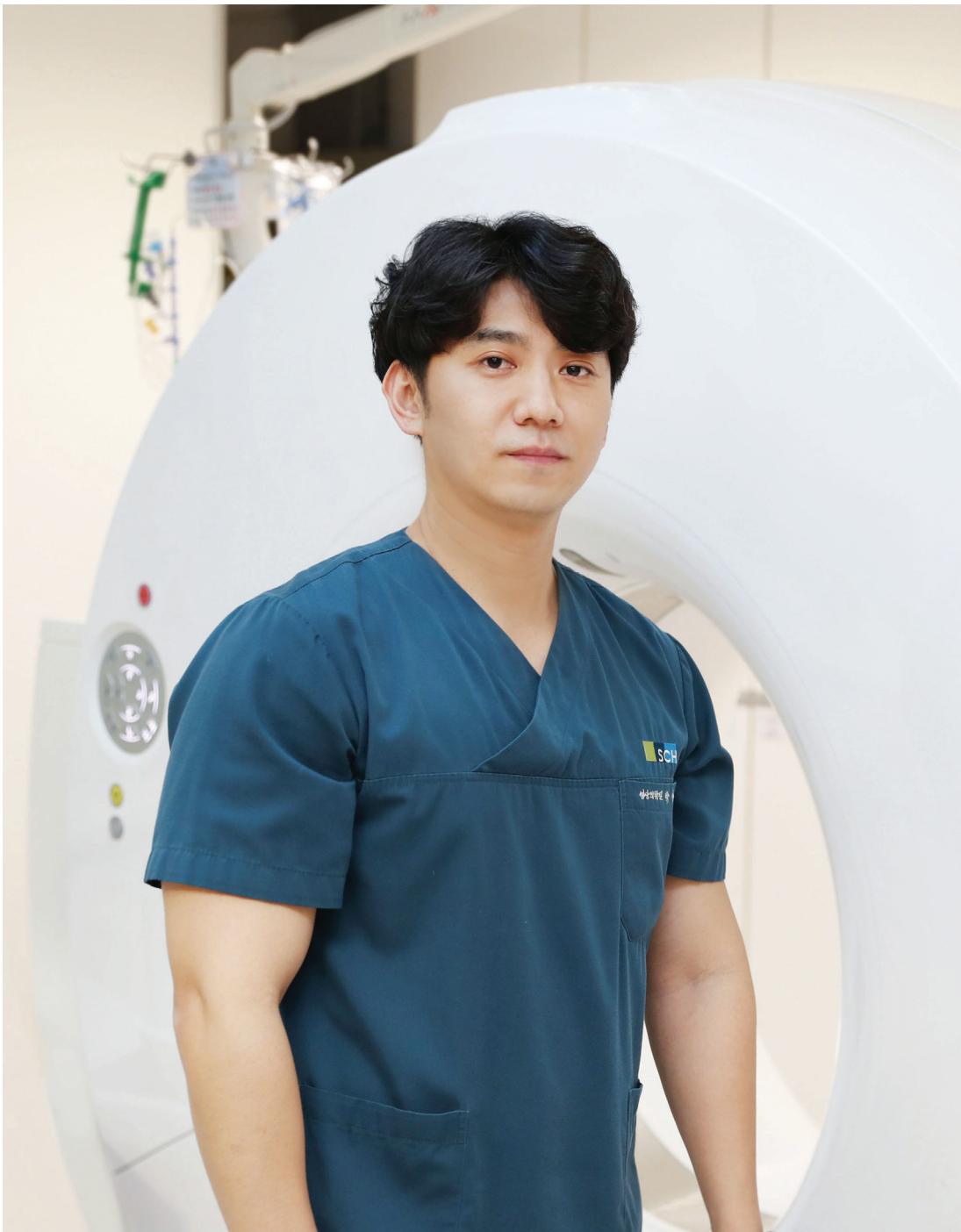


# WITH KRTA

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방사협보 2023 vol. 394



9 772765 341001  
ISSN 2765-3412



대한방사선사협회



## Contents

### 건강한 조직

KRTA가 전하는 이슈 & 뉴스

#### 02 인사말

한정환 협회장 인사말

#### 04 중앙회 소식

Vision  
KRTA News

#### 20 시·도회 소식

#### 27 전문학회 소식



### 건강한 정책

KRTA의 활동과 나아갈 길

#### 32 Guide

질병관리청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 통계연보> 발간

#### 34 Together

방사선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 36 Hospital Diary

코로나19 후유증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

#### 40 Cartoon

Zoom - in



### 건강한 소통

KRTA와 함께하는 공감 콘텐츠

#### 42 Interview

심폐소생술로 시민 구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상우 방사선사

#### 46 Essay

시선이 바뀐다

#### 48 Thinking

리더십Ⅲ 조직을 이끄는 힘

#### 52 Job

“방사선치료를 위한 발명품 기술이전 체결을 하기까지”

#### 54 Wisdom

돈(경제적 지원) 말고 고등학교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 58 Webtoon

숨 참으세요

## We are RT's

#### 60 공지사항

2023년 대한방사선사 춘계학술대회

#### 61 Quiz Event

독자퀴즈

**WITH KRTA**는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계간지입니다.

**WITH KRTA**는 협회 홈페이지([www.krta.or.kr](http://www.krta.or.kr))와 웹진([webzine.krta.or.kr](http://webzine.krta.or.kr))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WITH KRTA**에 게시된 글과 사진은 대한방사선사협회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WITH KRTA

방사협보 2023 vol.394

발행일	2023년 4월 30일(통권 제394호)
발행인	한정환(대한방사선사협회장)
편집장	임기선(충북대학교병원)
사무국	강보미(대한방사선사협회)
발행처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전화	02-576-6524
팩스	02-576-6526
이메일	krtta@krta.or.kr
홈페이지	<a href="http://www.krta.or.kr">www.krta.or.kr</a>
광고 문의	협회 02-576-6524
편집·디자인	디자인판



웹진 바로가기



(사)대한방사선사협회  
홍보동영상

존경하는 (사)대한방사선사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의 선택을 받고  
제25대 협회장으로 선출된 한정환 인사드립니다.

2025년 7월 31일이 되면 설립 60년이 되는 우리 협회는 방사선사를  
대표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로, 의료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제25대 집행부는 'INNOVATION 25'를 이루어,  
'방사선사 회원 모두 협회의 사랑, 협회 또한 회원 모두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세 가지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회원에게 회무를 알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과 소통하며,  
제안하는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 하겠습니다.

둘째 의료 직종별 업무영역에 대한 변화를 만들려는 치열한 환경 속에서,  
회원 권익을 지키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회원을 위한 정책을 연구 및 개발하고, 유관단체와도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회원과 함께하는 KRTA의 미래 혁신, INNOVATION25"는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힘을 모을 때 만들 수 있습니다.

제25대 집행부의 약속 함께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25대 협회장 한 정환



## 건강한 조직

KRTA가 전하는 이슈 & 뉴스

04     중앙회 소식  
Vision  
KRTA News

20     시·도회 소식  
서울특별시회  
인천광역시회  
대구광역시회  
광주광역시회

27     전문학회 소식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대한인터넷영상기술학회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

# 5만여 방사선사 현장의 목소리를 들겠습니다!!

25대 innovation 대한방사선사협회 집행부의 약속

## KRTA의 미래 'Innovation 25' Future of KRTA, 'Innovation 25'

### 오아시스로 만드는 회원의 미래 준비

첫 번째 약속은  
**O(Open gateway)**  
입니다

- 회원 모두에게 개방된 협회로서 회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이루겠습니다.
- 협회 조직을 활성화하고 전국 방사선학과 학생 지원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 유관단체와의 협업 등으로 회무를 보다 활성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A(Accept)**  
입니다

- 협회 행정처리를 규정화하여 국제품질경영인증(ISO 9001)을 획득하겠습니다.
- 장비안전관리 인증을 획득하겠습니다.
- 행정처리의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S(Sharing)**  
입니다

- 회원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대의원 및 중소병원 위원회 등을 통한 정보 교류에 힘쓰겠습니다.
- 법무법인 노무법인 등을 통한 협회 회원 고충 처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약속은  
**I(Integration)**  
입니다

- 회원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회원 교육(연수교육/보수교육 등)의 질과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약속은  
**S(Service)**  
입니다

- 실천할 수 있는 정책과 소통으로 회원에게 다가가겠습니다.
- 협회 정책 등에 관한 공청회나 포럼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12. 1** · 전문안경사 양성과정 운영위원회(FCO)  
워크숍 업무지원
- 12. 2** · 제25대 대의원 선거에 대한  
사전 준비 회의
- 12. 3** · 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  
정도관리 심포지엄
- 12. 6** · 신한은행 업무협약식  
·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접수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요청
- 12. 7** · 서영석 국회의원 면담  
· 전문학회장 간담회
- 12. 9** · 제11차 회장단 회의  
· 제4차 인사위원회의  
·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의
- 12. 12**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  
직무 실태조사' 연구 확대 자문회의
- 12. 13** · 간호법제정 저지 보건의료연대(13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
- 12. 14** · 2022 세계방사선사총회  
· 인천광역시회 회원 간담회  
· 2022 국제전문방사선사 이사국 회의  
· 제25대 대의원 선거 및 당연직 대의원  
선임 질의 회의  
· 인천시회 17대 회장 선거 투표권  
부여에 대한 유권해석 회신

- 12. 15** · 서영석 국회의원 면담  
· 2022 세계방사선사학술대회
- 12. 16**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추가 지정 심사
- 12. 17** · 가야대학교 지방연수원 유방초음파 개강
- 12. 19** · 전주비전대학교 지방연수원 협약식
- 12. 22** · 제12차 회장단 회의
- 12. 23** · '보건의료인력 직무실태조사' 병원설명회



- 12. 26** · 전임회장 간담회  
· 간호법 제정 저지 1인 시위
- 1. 1. 19**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
- 12. 27** · 제3차 임상전문가조정위원회 회의  
참석
- 12. 29** · 2022년도 무면허 신고자 포상
- 12. 31** · 가야대학교 지방연수원 유방초음파  
종강
- 1. 4** · 충청남도회 선거의 회차 정의와  
선거권에 관한 유권해석 회신
- 1. 5** · 미디어혁신부 회의  
· 국회앞 간호법 제정 저지 1인 시위  
· '보건의료인력 직무실태조사' 참여  
요청
- 1. 9** · 간호법 저지 보건의료연대 단체장  
회의
- 1. 10** · 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  
운영위원회의
- 1. 11** · 제1차 중앙관리위원회의

## 방사선사협회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



- 2. 25** ·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
- 3. 2** · 인수위원회 회의
- 3. 3** · 회원 간담회
- 3. 4** ·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학술대회
- 3. 7** · 간호법 제정 저지 1인 시위
- 3. 9** · 회원 간담회
- 3. 10** · 제1차 회장단회의
- 3. 11** · 충남 의료기사 단체 연합회 발대식
- 3. 14** ·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의



- 3. 16** · SRS TECHNOL 이사회의 및 정기총회
- 3. 14** · 간호법 제정 저지 1인 시위
- 3. 18** · 임시이사회  
· 제2차 회장단회의  
· 제1차 상임이사회의
- 3. 19** · 경기도회 학술대회
- 3. 20**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3차 정기회의
- 3. 22** · 교육평가원 현판식(동남보건대학교)



- 3. 23** · 협회장 회원 간담회
- 3. 24** · 교육평가원 현판식(춘해보건대학교)  
· 울산광역시회 대의원 간담회
- 3. 25** · 제56차 대민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 KIMES&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 제57회 국제  
학술대회
- 3. 27** · 협회 업무 인수인계
- 3. 28** · 의료전문지 기자 인터뷰
- 3. 29** · 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 위원회의
- 3. 30** · 법무법인 자문변호사 면담
- 3. 31** · 주식회사 제브 제28기 정기 주주총회  
· 춘계학술대회 점검



중앙회 소식

## NEWS

## 대한방사선사협 한정환 제25대 회장 당선

‘회원의 미래를 준비하는 협회 만들겠다’ 강조



한정환 신임 회장



이배원 신임 부회장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 2월 25일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5만여 방사선사를 대표하는 제25대 회장 및 부회장을 선출하고

△ 2022년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 △ 202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등을 심의했다.

이날 경선으로 치러진 협회장 선거에는 재적 대의원 259명 중 248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새 회장에 한정환(삼성서울병원)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부회장에 이배원((의)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후보가 126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한정환 신임 회장은 제24대 집행부 임기 중 중앙회 감사로서 회계 및 회무 전반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 이배원 신임 부회장은 제24대 복지·권익이사로 회원의 권리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힘을 기울였다.

신임 한정환 회장은 당선 공약인 ‘이노베이션 25’를 통해

- 회무의 전문화와 투명화
- 행정처리 규정화
- 회원과의 소통 활성화
- 회원의 권리 신장
- 회원을 위한 정책 실천으로 “회원의 미래를 준비하는 오아시스(OASIS) 같은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부회장 선거에는 6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강철호(제주대학교병원), 장지필(선우요양병원), 서영배(충북대학교병원), 최정욱((의)길의료재단 길병원) 후보가 신임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임시이사회, 제1차 상임이사회를 마친 뒤 관계자들이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제25대 집행부 공식 출범

제25대 상임이사진 구성으로 본격 활동에 박차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제25대 한정환, 이배원 집행부의 공식 출범을 알리며 힘찬 도약을 알렸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 3월 18일(토) 협회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의를 개최하여 9명의 상임이사를 선임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각 영역의 이사진과 협회의 비전을 공유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한정환 회장은 “대내적으로 방사선사의 역량 강화, 회원의 권리 신장에 힘쓰고, 대외적으로 타 직종의 업무 침탈 방지와 방사선사 단독법 제정의 실현으로 국민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방사선사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하 대한방사선사협회 제25대 집행부 명단이다.

- ▲ 회장=한정환(삼성서울병원)
- ▲ 부회장=이배원((의)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강철호(제주대학교병원), 장지필(선우요양병원), 서영배(충북대학교병원), 최정욱((의)길의료재단 길병원)
- ▲ 총무이사=김승철(강원대학교), 학술이사=송창욱(서울대학교병원), 사업·보험이사=이준(건국대학교병원), 재무이사=차상영(인하대학교병원), 미디어혁신이사=임기선(충북대학교병원), 복지·권익이사=이기현(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법제이사=김창욱(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육이사=이진욱(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안전관리이사=이민우(건국대학교병원)

## 제25대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원동력 9개 부서를 소개합니다



### 총무부



이사: 김승철

부장: 김계선, 김우진, 서재일

이사 김승철

회원의 눈으로 협회의 사업을 합리적인 방향에서 추진하고 조율하여 타당성을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관습에 얹매이지 않고 개혁하는 신념을 담아내어 정성스럽게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회무는 인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협업하는 것을 원천으로 삼아 각 회무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무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소통은 언어적 전달이 아니라 적극적 소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역량과 몸동작이 어우러져야 정확한 뜻을 전달할 수 있듯이 총무부는 내부적으로는 김계선, 김우진, 서재일 선생님과 나누어 담아 각 부서 임원님, 회원님들과 등가교환하여 협회 회무가 어깨춤을 출 수 있도록 신명나는 부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효율과 합리적인 회무에 신명나는 총무부

### 학술부



이사: 송창욱

부장: 이주형

이사 송창욱

#### 과거와 미래의 융합,

#### 시·도회 및 전문학회와 함께하는 학술부

코로나 팬데믹이후 학술분야는 많은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면의 공간에서 비 대면의 공간으로 변화는 수십년간 당연

하게 운영되었던 학술 운영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순기능을 주기도 하였지만 학술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2023년 COVID-19의 상황은 많은 교훈을 주며 정리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다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그리고 함께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 시스템으로, 단순 회귀가 아닌 한층 발전된 모델로의 학술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5대 Innovation 학술부는 과거와 미래를 융합하는 활동을 전개하려 합니다. 시·도회 및 전문학회의 학술활동 지원과 교류를 통해 함께 건실한 미래를 창출하는 학술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활동이 어려웠던 국제간 학술 교류도 활성화하여 세계 속 방사선사 교류의 장에서 대한민국 방사선사의 역량을 전달하고 발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과거와 미래의 융합, 시·도회 및 전문학회의 함께하는 교류 그리고 세계 속 방사선사 역량 강화 활동은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지원바랍니다.

### 사업·보험부



이사: 이 준

부장: 김진수

이사 이 준

#### 현재를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보험부

방사선사협회의 현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찾으면서, 대비책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갑니다.

지난 집행부에서 해오던 연속적인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과소평가된 수가에 대하여 정당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작업하겠습니다.

검사 청구에 방사선사 면허가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고, 회원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협회가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여, 뒤에 오는 방사선사에게 자랑스러운 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안되겠지만,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꾸준히 노력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 재무부

이사: 차상영  
부장: 김병택, 윤동민

이사 차상영

재무부서는 협회의 자산관리, 금융거래, 예산 계획, 회계 시스템 관리, 세무 및 세금 신고, 급여 등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이에 재무부는 예산 편성에 따른 각 부처의 사업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회원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협회가 앞장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6개 시·도회 및 전문학회, 각 부설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회계 처리의 공유와 통일성을 확립하고, 협회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협회의 발전 및 회원들의 이익에 기여 하겠습니다.

**협회의 자산과 재정관리 및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복지·권익부

이사: 이기협  
부장: 김동진, 신유주

이사 이기협

안녕하세요? 25대 집행부 회원의 복지와 권익을 맡게 된 복지·권익이사 이기협입니다. 복지와 권익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개의 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복지부장님과 권익부장님의 봉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부장님과 함께 회원과의 소통을 통해 무엇이 필요한지 귀 기울여서 듣고 복지와 권익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잘 찾아 회원들과 함께 하는 복지·권익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 직종별 업무영역에 대한 변화를 만들려는 치열한 환경 속에서,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 회원분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과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과 소통으로 복지와 권익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잘 찾아 회원과 함께하는 복지·권익부가 되겠습니다.**



## 미디어혁신부

이사: 임기선  
부장: 조선일, 양민재

이사 임기선

기존 공보부에서 디지털 콘텐츠에 익숙해진 회원들의 일상에 발 맞추어 미디어혁신부로 새롭게 태어났고 이름과 걸맞게 회원과의 소통을 발판삼아 회원과 협회, 나아가 보건의료 관련 언론과 기관들과도 임의로운 네트워크를 통해 현 집행부에서 회원들께 약속한 'Innovation 25'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회원 모두가 누구라도 친근한 협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미디어혁신부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고맙습니다.

**5만여 방사선사 회원들과의 소통으로  
회원이 주인 되는 협회를 만들어 갈 미디어혁신부  
첫째도 둘째도 '소통'입니다. 많은 회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미디어혁신부가 되겠습니다.**



## 법제부

이사: 김창욱  
부장: 지은

이사 김창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의의 여신 디케(Justitia)를 보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한손에는 칼을, 공정성과 공평성을 상징하는 저울을 다른 한손에 들고 또한 어떤 편견과 사사로움이 없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협회 법제부는 정의의 여신인 디케가 가진 의미를 담아 정관 및 제규칙규정의 조문 하나하나에 5만여 방사선사들을 위한 보편적 가치의 공정성과 정의를 구현하고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협회 산하 모든 단체에서 정관 하 제규칙규정이 준수될 수 있게 스스로가 기준과 모범이 될 것이며, 한편으로는 회원들의 법리적 답답함과 궁금증에 공감하고 소통하여 가깝고 빠르게 응답하는 법제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관 및 제규칙규정의 조문 하나하나에  
5만여 방사선사들을 위한 보편적 가치의 공정성과 정의를  
구현하고 지켜나가겠습니다.**



## 교육부

이사: 이진욱

부장: 문영주, 이석원

이사 이진욱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의료 현장에서 방사선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콘텐츠의 개발은 물론 교육 주체인 시도회 및 전문학회와 소통하겠습니다. 회원을 위한 질 높은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선도하는 교육부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방사선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콘텐츠의 개발과 교육 주체인  
시도회 및 전문학회와 소통하겠습니다.



## 안전관리부

이사: 이민우

부장: 이재현, 안희민

이사 이민우

안전관리란, 말 그대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추구하고자 안전관리부에서는 시도회, 전문 학회와 더불어 많은 회원님들과 협업을 통해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회원분들과 열린 소통을 통해 성장, 발전해 나가는 방사선 안전관리부가 되겠습니다.

'A small leak will sink a great ship' 란 조그만한 틈새가 큰 배를 침몰 시킨다는 뜻입니다. 안전관리부에서는 안전에 대한 조그만한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관리부, 방사선 안전을 책임진다.

#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총파업 결의를 위한

일시: 2023년 4월 8일(토) 14시 장소: 대한의사협회 지하1층 대회의실



## 간호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 대회

방사선사 업무 영역 끝까지 지킬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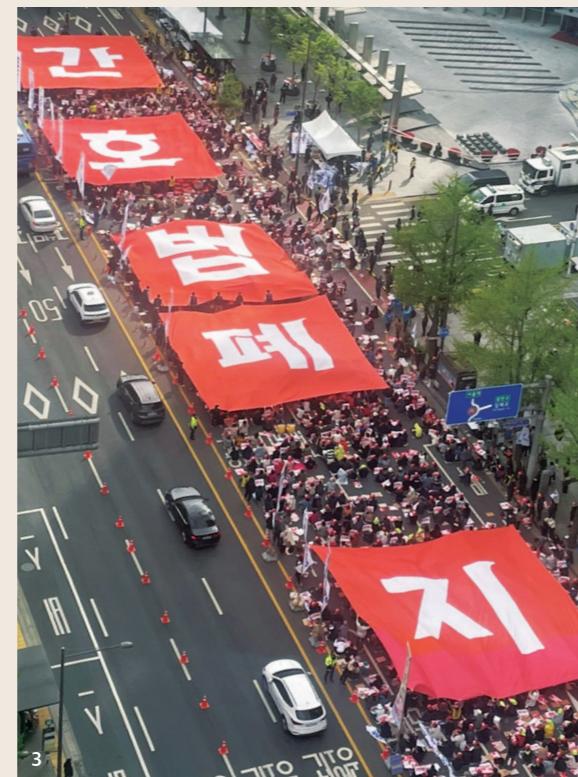




1, 3 간호법 반대 구호를 외치는 보건복지의료연대  
2, 5 간호단독법 저지 13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4 연대사에 나선 한정환 회장

의사, 방사선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간호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당초 간호법은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며 27일로 상정을 미룬 상태다.



2

WITH KRTA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에서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에만 특혜를 부여하여 보건의료직역 간 협업을 깨뜨린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뒤이어 구호 제창과 악법 저지 투쟁 영상 상영,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의 투쟁사로 결의 대회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됐다.

연대사에 나선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간호법에 타 직역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간호협회에 묻는다. 지금까지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에 대한 침탈이 없었던가? 이미 간호사들은 오랜 시간 우리 방사선사의 직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었던바, 이런 부당함을 막고자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소송을 진행해 왔다."며 "타 직역의 직무 침탈에 따른 피해를 막고, 우리 방사선사의 업무 영역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라고 간호법 저지를 강력히 외쳤다.

결의 대회에 참여한 방사선사 및 보건의료 직역들은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직역침탈 웬 말이냐, 간호법안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간호법 폐기를 요구했다.❾

66 타 직역의  
직무 침탈에 따른 피해를 막고,  
우리 방사선사의 업무 영역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99



17

## '간호법 저지'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국회 앞 1인 시위 중인  
한정환 협회장



한정환 협회장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이 '간호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한정환 협회장은 "간호협회에서 추진하는 진료지원인력(PA) 업무 범위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방사선사의 업무를 포함한다. 현재에도 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해가 빈번한 상황에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업무 범위 침탈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주장하는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력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직역 이기주의에 빠진 법으로, 간호법 통과는 보건의료체계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환 협회장은 "타 직역으로부터 존중과 이해를 받아 화합하는 보건의료체계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400만 보건의료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배원 부회장

7일 국회 정문 앞,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대한방사선사협회 이배원 부회장이 1인 시위를 계속됐다.

이날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이배원 부회장은 "특정 직종만을 위한 법안 수용으로 보건의료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편파적 법안을 막고, 보건의료계가 상생발전할 보건의료 체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도 시위에 나섰다"고 밝히며 "지금이라도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호법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3일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 투쟁 선포식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강경 대응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국회 앞 1인 시위 중인 이배원 부회장



이민우 안전관리이사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대한방사선사협회 이민우 안전관리이사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지척에서는 간호협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날선 대립각을 보였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분리하여 간호사의 업무 범위, 체계 등에 관한 단독법 제정을 골자로 한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이민우 안전관리이사는 "현재 간호협회에서 추진하는 진료지원인력(PA) 업무 범위에는 방사선사의 업무인 초음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 침해가 빈번한 현재 상황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간호법이 추진된다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유명무실화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의 유기적 협업 체계 붕괴로 결국 국민 보건 안전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며 "코로나 19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한 보건의료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편향적 시각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료단체들은 법안 통과 시 대규모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30일 국회 본회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앞 1인 시위 중인 이민우 안전관리이사



## 서울특별시회

## NEWS



### 제58차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 정기총회 개최

#### 제25대 서울특별시회 회장 박성모, 부회장 장재인 회원 당선

지난 2023.01.28.(토) 14:00~18:00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 223호에서 재직 시의원 123명 중 73명이 참석, '제58차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제58차 정기총회 의장으로 안미섭(삼성서울병원) 시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의장의 진행으로 성원 보고, 감사보고, 전자 회의록 접수, 2022년도 주요회무보고,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보고 승인의 건, 2023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2023년도 예산편성(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다.

▲ 제25대 시의원 선거 개표 결과로 각 소속구 배정 인원 총 52명에서 입후보 10명으로 무투표 당선되었음을 선포하였고, ▲ 제25대 감사 선거 개표 결과로 기호 1번 김용기 후보 449표(25.27%), 기호 2번 백찬기 후보 237표(13.34%), 기호 3번 권성옥 후보 454표(25.55%), 기호 4번 이창희 후보 637표(35.85%)로 기호 3번 권성옥 후보, 기호 4번 이창희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하였다.

▲ 제25대 회장·부회장 선거 개표 결과로 기호 1번 박성모, 장재인 후보 715표(38.96%), 기호 2번 김동환, 손기경 후보 636표(34.66%), 기호 3번 이익표, 안치복 후보 484표(26.38%)로 기호 1번 박성모, 장재인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제25대 서울특별시회 회장으로 당선된 박성모 회장은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에 깊이 감사드리며, '존중받는 직Up! 함께하는 협Up! 혜택받는 사Up!'을 위해 초심을 잊지 않고 회원님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서울특별시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



박성모 회장 인사말

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회 방사선사 회원 여러분!  
이무리 좋아하는 여러분도 매일 8시간을 꾸준히 해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듯이,  
우리는 매일 8시간 이상 최선을 다해 방사선사 직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을 이용해 하고, 나 삶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의 전문성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제25대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는 회원님들께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사선사 행정서비스를 회원 중심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정책 수립에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정책 의제, 결정, 집행, 평가 등 과정에서 제25대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 김행부와  
회원 및 전문학회 & 시민위원회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시스템을 실행하겠습니다.  
회원 참여가 방사선사 행정 서비스의 새로운 획두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둘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회원의 믿음과 신뢰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변화 과정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어려움, 갈등을 이겨내고  
정책의 역동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겠습니다.  
회원의 일과 삶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표준화되고 공유되는 상태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업무의 표준화 및 질적 관리, 업무 스트레스 해소, 의료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회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특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회원의 일과 삶의 조화를 자지해주는 의료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회 방사선사 회원 여러분!  
당당하게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한 서울특별시회 회원의 뜻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제25대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의 절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25대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 서울특별시회 학술·교육 우수시도회상 선정



2023.01.29.(일) 14:00 대한방사선사협회 지하1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26차 정기이사회에서 서울특별시회가 '2022년도 우수시도회'로 선정되어 상장과 지원금을 받았다. 서울특별시회는 2022년도 다양한 콘텐츠 구성과 우수 강사 초빙 등을 통해 양질의 방사선사 보수교육을 시행해왔을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열어 소속 회원들의 자긍심을 지속적으로 높여 왔으며, 또한 협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커 우수 시도회로 선정되었다.

### 제25대 서울특별시회 임원 공모제 시행

## 임원 공개 모집 및 결과 안내

서울특별시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임원 공모제를 시행하였다. 2023년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임원 공개 모집을 진행하였으며, 담당 분야별로 능력 있는 회원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 '제25대 서울특별시회 임원'이 구성되었다. 박성모 회장은 "제25대 집행부에서는 회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이벤트를 준비하겠다."고 전하였다.



#### 제25대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 '임원 구성 명단' 알려드립니다.

- 서울특별시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01.28.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제25대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박성모, 부회장 장재인'입니다.
- 2023.02.01.~10. 진행된 임원 공개 모집으로 구성된 '제25대 서울특별시회 임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담당 분야별로 능력 있는 회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 앞으로 서울특별시회에서는 회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이벤트를 준비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래 -

NO	직책	성 명	근무처
1	회 경	박성모	건국대학교병원
2	부 회 경	정재인	서울아산병원
3	총무이사	최우진	이화여대부속동방병원
4	총무부경	김치용	이화여대부속동방병원
5	제무이사	곽선흠	국립중앙의료원
6	제무부경	서현준	국립중앙의료원
7	학술이사	정민수	삼성서울병원
8	학술부경	김수지	삼성서울병원
9	교육이사	임종천	한양대학교병원
10	교육부경	부계철	건국대학교병원
11	교육부경	오재성	한양대학교병원
12	사업이사	임상욱	중앙대학교병원
13	사업부경	정지현	서울성모병원
14	사업부경	박상조	세브란스병원
15	홍보이사	남대웅	고대农牧 구로병원
16	홍보부경	윤동규	원자력의원
17	복지이사	최종희	청암우리병원
18	복지부경	최선흠	고려생명의원
19	복지부경	김도성	강동경희대학교병원
20	정보통신이사	정용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21	정보통신부경	신수재	서울지방경찰청
22	법제이사	박조훈	경북21세기병원
23	법제부경	전은혜	구로구보건소
24	국제이사	배승호	서울아산병원
25	국제부경	김동건	강동경희대학교병원
26	국제부경	정왕희	삼성서울병원
27	섭외이사	서경범	건국대학교병원
28	섭외부경	양호호	서울아산병원
29	섭외부경	정경호	삼성서울병원
30	총소방·의원이사	임연진	한국의학연구소 경남경진센터
31	총소방·의원부경	유 민	녹십자아이메드
32	총소방·의원부경	임주훈	한국의학연구소 경남경진센터

단행본  
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장

## 서울특별시회

## NEWS

**'2023년도 KIMES &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 3월 25일 제57차 국제 학술대회' 개최**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성모)는 '2023년도 KIMES & 서울특별시 방사선 사회 제57차 국제 학술대회'를 3월 25일 토요일 10:00~18:00 삼성동 코엑스 4층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전면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국제(한국·대만·중국·일본) 학술대회로서 「분야별 회원 논문 발표, 재학생 논문 발표, 포스터 전시, 심포지엄, 특강, KIMES 2023 국제 의료기기 & 병원설비전시회 등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사전 접수 방법:** 2023년 3월 19일(일) 24:00까지 서울특별시회 홈페이지([www.srta.or.kr](http://www.srta.or.kr)) 접수. ※ 사전 접수 기간 이후는 당일 접수만 가능



**서울특별시회 중소 병·의원 근무 정회원 대상 학술대회 접수비 지원 사업 안내**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성모)는 지난 1월 28일 제58차 정기총회에서 승인 받은 내용에 따라 5인 이하 중소 병·의원에 근무하는 서울특별시회원 정회원을 대상으로 '2023년도 KIMES & 서울특별시 방사선 사회 제57차 국제 학술대회' 접수비 50%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 ▶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회원 중 5인 이하 중소 병·의원에 근무하는 정회원 (~2022년도까지 회비 완납 회원)
  - ▶ **신청 방법:** 서울특별시회 학술대회 접수 및 이수 후 서울특별시회로 지원금(20,000원) 신청
- ※ 지원금 신청 양식은 학술대회 종료 후 이수자 대상으로 개별 안내

## 인천광역시회

## NEWS

**문현상 가천대 길병원 파트장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의)길의료재단 길병원의 파트장인 인천광역시회 문현상 회원은 2022년 11월 30일(수)에 무료검진활동 및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보건의료를 향상시킨 공로와, 방사선피폭선량 최적화로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문현상 회원은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외에도 문현상 회원은 인천광역시회 총무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회관 건립 및 중앙연수원 인천분원을 개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17대 인천광역시회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거**



인천광역시회는 2023년 1월 28일 17대 집행부 선거를 실시하였다. 코로나 이슈 및 바쁜 회원들의 참여를 위해 온라인 투표로 진행했으며, 당일 저녁 개표결과 신임 회장에 박종창 회원, 부회장에 윤일 회원, 감사에 이은모 회원이 당선되었다. 제17대 회장 박종창 회원은 17대 집행부와 함께 방사선

사의 역량 강화와 유익한 최신 정보 제공, 각 전문 위원회를 신설 및 활성화하여 교육 및 학술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약속하였다.



인천광역시회는 2023년 2월 7일(화) 제16대 임원진과 17대 임원진이 인천광역시협회 회관에서 약 2시간에 걸쳐 각 부처별(총무, 학술, 교육, 재무, 복지, 사업, 홍보, 정보통신부서)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였다. 인수인계 중 제16대 회장 차상영 회원은 "더 좋은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응원하였으며, 제17대 회장 박종창 회원은 "지금까지 협회를 잘 이끌어온 16대 임원진에게 감사하며, 협회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는 17대가 되겠다."며 소감과 각오를 밝혔다. 이후 2월 15일(수)에는 17대 임원진들이 인천광역시협회 회관에서 임명장 수여식 및 각 부처별 업무분장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17대 박종창 회장의 공약 실현을 위한 각 전문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고, 회원들과의 소통 및 복지 향상을 위한 행사를 구상하는 자리를 가졌다.



# NEWS

## 제42회 대구광역시회 정기총회 개최



지난 1월 31일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제42회 대구광역시회 대의원 정기총회가 열렸다. 김청모 대구광역시회 수석부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정기총회는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을 비롯한 여러 내빈들의 인사말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는 서정현 대의원 의장의 성원 보고가 이어졌다.

또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17대 대구광역시회 회장 선출이 있었다. 56명의 시의회 대의원이 모인 가운데 단일후보로 입후보한 김청모 회장 후보와 장동석 부회장 후보로 단일 찬반 투표가 이루어 졌다. 투표는 56명 중 53명이 참여하여 53표(100%)의 찬성투표로 김청모 회장과 장동석 부회장이 17대 대구광역시회를 이끌어 가게 되었다. 새로운 회장단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방사선사의 배움과 발전을 위해 등불이 될 것 약속하였다.

끝으로 지난 16대 권덕문 전임 회장은 대의원 의장에 선출되어 협회와 회원들을 위해 계속해서 봉사하겠다는 소감을 발표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진행하는 정기총회였지만 여러 대의원들과 협회 임원들의 질서와 협조로 원활한 정기총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앞으로 더욱 새로워진 대구광역시회를 기대한다.



## 2023년 심장 초음파 전문화 교육 수료식

2023년 심장 초음파 전문화 교육을 대구보건대학교 초음파 교육 지방 연수원에서 2023년 1월 7일부터 2월 26일까지 8주간 총 48시간 과정의 교육을 모두 마쳤다.

지난해 1차 심장초음파 교육의 성과를 이뤄낸 노하우를 바탕으로 1월 7일 심장 초음파 전문화 교육 첫 날, 전 대구광역시회 권덕문 회장(16대)과 현 대구광역시회 김청모 회장(17대)을 비롯한 여러 임원과 초음파 강사 및 교육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2021년 5월 9일 개설한 대구보건대학교 지방연수원은 초음파 검사를 수행할 방사선사의 전문적인 연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임상경험이 풍부한 최고의 전문 강사진과 최신 시설의 초음파 실습실과 고성능의 삼성 RS80A, GE LOGIQ S6, PHILIPS HD11 등 모두 10여대의 장비와 초음파 교육용 시뮬레이션장비(ULTRASIM), 상복부, 산부인과, 유방, QC/QA 팬톰 등을 구비하여 모든 초음파 교육이 현장 실무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 2023년 대구광역시회 1차 온라인 보수교육 및 헬프라인(Help-Line) 운영

대구광역시회(회장 김청모)는 2023년 제1차 온라인 보수교육을 514명의 회원이 등록한 가운데 03월 26일 (일) 오전 10시에 시행하였습니다.

이날 보수교육에서는 4편의 주제를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제 1교시는 삼성서울병원 주영철 강사님의 '척추시상정렬과 방사선검사' 제 2교시는 대구 MBC 심영은 강사님의 '조직 내 소통 및 호감 있는 이미지' 제 3교시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서영석 강사님의 '영상의학과에서 안전사고 예방' 제 4교시는 삼성서울병원 김민석 강사님의 '족부 해부학과 방사선 검사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2023년 1차 온라인 보수교육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 당일 총 김청모 회장 외 20명의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09:00부터 14:00까지 대구보건대학교 연마관에서 '대응 TF팀'과 '헬프라인 (Help-Line)'을 운영하였습니다.



## NEWS



## 선종백 원로회원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당선

대한방사선사협회 광주광역시 제6대 회장을 역임한 선종백 회원은 전남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에서 32년여 동안 근무를 하면서 꾸준히 사진 분야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퇴직 후 광주시 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하였습니다. 그 후 부단한 노력을 하여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국전)로 등단하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광역시지회장을 역임하고 제29대 한국사진작가협회 본부감사로 활동하다가 2022년 제30대 부이사장에 당선 등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2023년 2월 18일 개최되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정기총회일에 공식적으로 취임하여 4년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퇴직 후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후배 방사선사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 한국사진작가협회 제30대 정·부이사장 당선인

- 2022.12.26.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30대 부이사장 당선
- 2002.01.01~2004.12.31. 제6대(사)대한방사선사협회 광주광역시회장 역임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29대 감사(현재)
- 제10대 한국예총 광주광역시연합회 부회장(현재)
- 한국사진작가협회 제33~34대 광주지회장 역임
- (현)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
- (현)광주시미술대전 초대작가
- (현)광주시사진대전 초대작가
- (현)대한민국정수사진대전 초대작가
- (현)광주사단합동전초대작가
- (현)광주매일신문 사진대전초대작가
- (현)5.18민주화운동기념 전국사진대전초대작가
- (현)춘향미술대전 초대작가
- (현)호남미술대전 초대작가
- (현)순천미술대전초대작가
- (현)대한민국정수사진대전 초대작가
- (현)장노출사진대전 초대작가

## NEWS



## 12대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발대식 및 신년회

이립(而立)의 시기에  
새롭게 도약하는 12대 집행부의 출범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는 1995년에 발기되어 약 30년 역사를 기반으로 방사선디지털융합과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중앙회 산하 전문학회이다. 논어(論語)에서 공자는 30살을 이립(而立)이라 하였다. 이는 “배우는 학문(學問)이나 견식(見識)이 일가(一家)를 이루는 말이며 자아(自我)가 도덕상(道德上)으로 흔들리지 아니하여 확고한 의지”를 가지는 시기라 한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가 이립(而立)과 같은 시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변화를 꾀했다. 11대 이종웅(강동경희대병원) 회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12대 김광수(서울아산병원) 회장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었다.

새롭게 취임한 김광수 회장은 앞으로 3년간 회장직 수행을 통해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가 4차 산업 과학과 방사선 지식 융합의 이립(而立)을 위해 학회 내의 연구위원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의 세분화 구성을 통해 한층 더 전문적인 디지털의료방사선분야 연구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두었다. 또한 디지털영상학회가 등재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더 나아가 디지털의료영상학회의 정통성 유지에 근간(根幹)을 두어 학회의 균형적인 발전과 회원들과의 친밀한 소통으로 더욱 더 학회를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지난 1월 27일에는 12대 신임 김광수 회장의 취임식과 더불어 새롭게 도약하는 12대 상임이사, 연구위원장, 학술위원장, 평의원장 등의 임명장 수여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신임 회장과 신임 임원진들이 화합과 교류를 통해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단합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 제27차 대한인터넷영상기술학회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지난 2023년 2월 4일 대한인터넷영상기술학회는 LS용산타워 회의실에서 제27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는 대한인터넷영상기술학회 전국대의원, 전임회장, 임원, 감사가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송창욱 대의원의장(서울대학교병원)을 추대하였고 성원(총원 50명중 참석 38명, 위임장 11명, 총 49명)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선언으로 시작하였다.

'2022년 회무 보고 및 재무 보고 결산 의결, 감사보고'와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 의결, 인부천지회 설립, 회칙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하였다. 회칙 개정은 대한방사선사협회 전문학회 설치규정 개정 및 변경에 따라 정기 대의원 총회를 정기 평의원 총회로 변경, 인부천지회 설립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인부천지회 설립은 대형종합병원 5개, 종합병원 9개의 총 14개 병원의 회원 66명의 2022년 활동 현황을 이동환 회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의 대표 발언을 필두로 안건을 심의하여 총38명 중 찬성38명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로서 대한인터넷영상기술학회는 총 12개의 지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의안 심의를 모두 마친 후 폐회하자는 대의원 의견에 따라 송창욱 의장이 동의(김종덕 외)와 재정 (이동환 외)을 받아 제 27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폐회하였다.



##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 참석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회장 김준규)는 지난해 11월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보건의료복지연대의 간호법 제정 반대를 촉구하는 총궐기대회에 참여했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간호법은 오랜 시간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0월 4일 대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간호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해 강경하게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1인시위에 동참을 하고 있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시도 및 전문학회의 회원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약 10만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된 목소리로 간호법 철회를 외쳤다.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에서는 회장단과 상임이사들 중심으로 이번 집회에 참석하였고, 추후에 2차 집회가 있을 시 더 많은 임원들까지도 참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김준규 회장은 전문 학회 차원에서 간호법 제정의 불합리함을 홍보할 것이며, 협회의 의지에 연대행동을 이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여 집회에 참석해주신 회장단과 이사들께 수고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 창립 30주년 기념자료집 출간 예정

4800여 회원과 함께한 30년간의 발자취 담아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회장 김준규)는 학회 30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기념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기념 자료집을 발간한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실시한 슬로건, UCC, 사진 공모전과 초대 이명기 회장의 회고록, 역대 회장들의 인사말, 역대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승격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총 200여 페이지로 구성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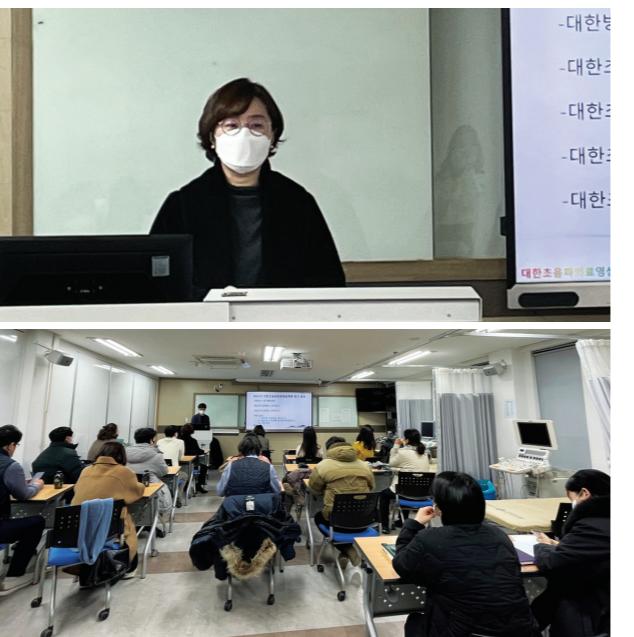
기념자료집의 제목은 슬로건 공모전의 당선작 <Continued Passion, Try again!!>으로, 다가올 30년을 향한 열정과 비전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부에는 11대 학회장인 김준규 회장의 발간사를 시작으로 초대 회장이신 이명기 고문의 회고록과 학회장을 역임한 역대 회장들의 기념사와 지역 대의원과 학회 원로 교수님 등의 축하 메시지를 담았고, 제2부는 학회의 조직도와 역대 회장 및 고문, 기수별 임원진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제3부는 학회의 연혁과 활동 경과 등 학회가 30년 동안 활동한 내용을 집대성했고, 제4부에는 30년 동안의 학술활동에 대한 내용과 2021년 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내용, 학술활동 자료와 현황을 담았다. 제5부는 학회의 회칙과 역대 뉴스레터, 학회 주요 사진 등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회측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및 모임이 잠정 연기되면서 창립 30주년인 2021년에 춘계학술대회를 온라인 Live webinar 형태로 진행하게 되어 회원들과 함께 기념식을 개최하지 못 한 게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이번 자료집 제작을 통해서 소중한 기록들을 남길 수 있어서 뜻깊은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준규 회장은 "30여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회원들이 쌓아온 학회활동의 자료들을 이제부터라도 소중히 여기고 잘 정리해서 여러 회원님들과 훗날 우리 학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남다른 깊이와 향기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라는 말과 함께 "초심을 잊지 않고 더욱 단단해진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하였다.

## NEWS

##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회장 구혜정)는 2023년 1월 28일(토) 양재동에 위치한 대한방사선협회 회의실에서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각종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승인이 이루어졌다. 의안으로 상정된 2022년 회계 결산,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평생회원 교육비조정, 가입비 증액, 17대 임원 임기조정, 지회 회칙 조정 등 기타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어 각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공유하며 2023년 학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같은 날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제58차 서울특별시회 정기총회에서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가 학술상을 수상했다.



## 건강한 정책

KRTA의 활동과 나아갈 길

32 Guide

질병관리청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 통계연보> 발간

34 Together

방사선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36 Hospital Diary

코로나19 후유증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

40 Cartoon

Zoom - in



## 질병관리청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 통계연보> 발간

글 송대영(세종충남대학교병원)

### 1. '21년 방사선관계종사자는 10만 1,964명으로, 지난 5년간 약 21%(1만 7,691명) 증가

- 방사선관계종사자 중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비율이 72% 차지

### 2. 방사선관계종사자의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0.38 밀리시버트\*

(이하 mSv)로 전년 대비 약 5% 감소

\*인체 조직 및 장기의 방사선민감도를 반영한 방사선량의 측정단위(국제표준단위)

### 3. 직종별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방사선사가 0.82 mSv로 가장 높고, 의사 0.28 mSv, 간호조무사가 0.24 mSv 순임

- 연간 선량한도(50 mSv)의 1/100 이하 수준이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높은 수준

- 피폭선량 지속적 감소를 위해 종사자 인식개선 제고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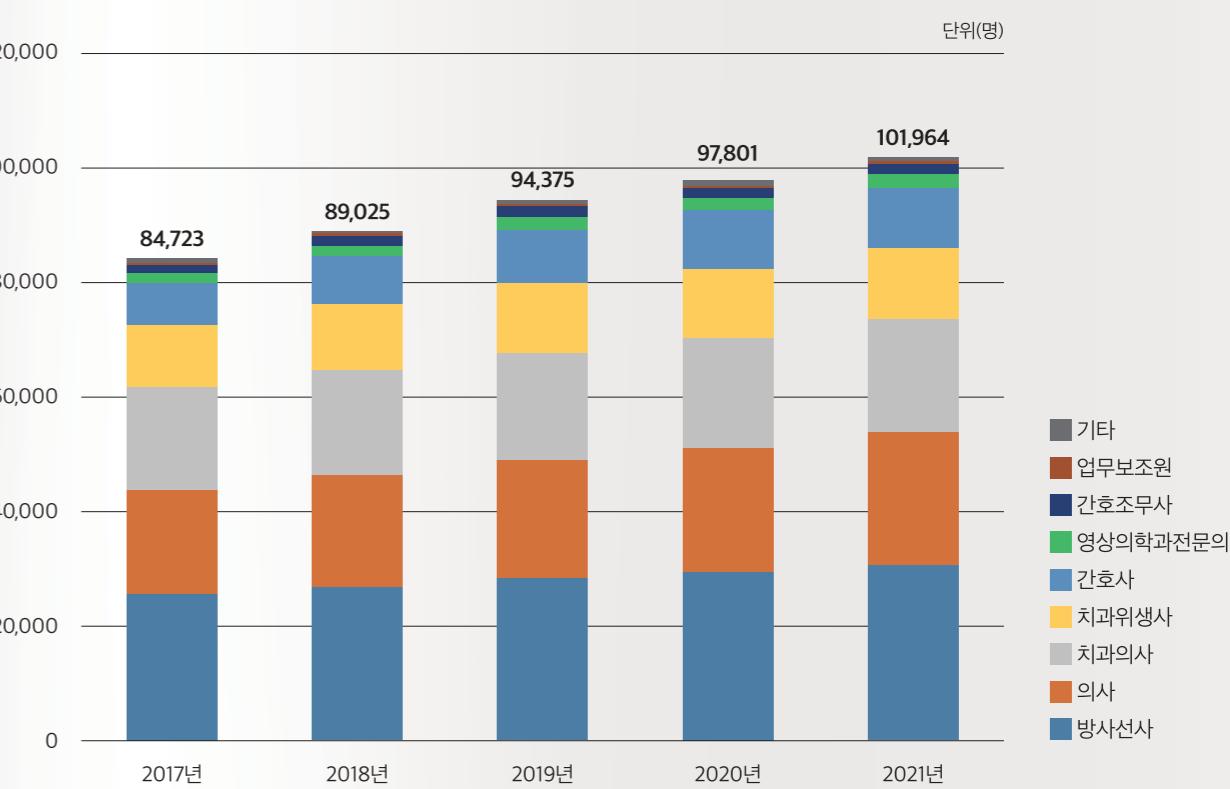
안전관리수칙 준수 필요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의 진단방사선분야에 근무하는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한 해 동안 받은 방사선 노출량을 분석해 '2021년도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를 발간했다고 2022년 12월 23일 밝혔다. 방사선관계종사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의료기관에 근무해 직업적 방사선피폭에 노출 우려가 있는 종사를 의미한다. 연보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방사선관계종사자 수, 피폭선량 추이 및 2021년도 피폭선량을 직종별, 연령별, 성별, 지역별, 피폭선량 구간별(15개 구간)로 구분해 수록했다. 또한 '전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선 장치) 설치 현황'을 수록해 방사선장치 통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등 학술연구에 활용하도록 했다.

연보에 따르면 2021년 전국 4만 2527개 의료기관에서 진단방사선분야의 방사선관계종사자 수는 10만1964명으로, 지난 5년간 평균 약 5%씩 증가했다. 방사선관계종사자 중에서는 방사선사(3만945명, 30.4%), 의사(2만2951명, 22.5%), 치과의사(1만9720명, 19.3%) 등 세 직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72% 이상이었다. 2021년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은 0.38mSv(전년 대비 5%(0.02mSv) 감소)로, 연간 선량한도(50mSv)의 1/100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랑스 0.27mSv(2021년), 일본 0.28mSv(2021년), 독일 0.34mSv(2020년), 캐나다 0.08mSv(2018년) 등 선진국의 의료방사선 종사자 연평균 방사선피폭선량과 비교하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직종별 연간평균피폭선량은 방사선사가 0.82mSv로 가장 높고, 의사 0.28mSv, 간호조무사가 0.24mSv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직종 중 치과위생사는 0.13mSv로 가장 낮은 선량값을 보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줄이기 위해 2023년에 첫 시행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보수교육 이수, 방사선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나온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 통계연보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정책정보, 의료방사선안전관리 게시판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❾

&lt;방사선관계종사자 전체 및 직종별 분포(2017-2021년)&gt;





## 방사선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글 심지나(세브란스병원)

### 방사선사 및 방사선학과

#### 홍보의 필요성

필자는 주변 방사선사들과 직업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의료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감과 보람을,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 방사선사라는 직업은 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에 직접 기여할 수 있어 직업 만족도가 크다.

방사선을 이용한 다양한 의료 영상 검사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직업의 수요 및 중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들은 방사선을 이용하는 직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등 방사선사라는 직업에 대해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

아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 이번 8월에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연하게 진학사의 멘토링 강연 참여 요청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진학사에서 중3, 고1, 고2 학생, 학부모 대상 무료 강좌로써 대학생, 현직교사, 현직자 등이 멘토로 출연하여 입시나 직업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온라인 강연을 통해 멘토와 학생, 학부모를 연결함으로써 생활기록부나 수행평가 등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정보를 대중화 하기 위해 노력하며, 현직자를 멘토로 초빙하여 실질적인 경험을 토대로 취업 현실까지 고려한 진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필자는 방사선사는 직업의 인식을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훌륭한 인재들이 방사선학과에 모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방사선사가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 멘토링 강연에 참여하게 되었다.

필자는 이전에도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대상으로 방사선학과의 인지도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그때 느꼈던 것은 학생들의 진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고등학교 선생님조차도 우리 직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멘토링 강의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에 많은 영향을 주는 학부모님을 상대로 방사선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방사선학과의 교육과정 소개, 대략적인 입학 커트라인과 같은 기본적인 입시 정보에서부터 방사선학과 졸업 후 진출 가능한 진로, 방사선학과에서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방사선사의 진로를 선택한 후의 삶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부분의 대중들이 방사선사가 하는 일이라고 떠올리는 것은 흉부 엑스레이를 검사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대학병원에서 방사선사의 업무는 다양하다. 일반 엑스레이 검사에서부터 투시, CT, MRI, 초음파, 유방촬영 등 총 13개의 업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며 많은 곳에서 방사선사가 일하고 있으며, 방사선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전달하였다. 또한 방사선학과는 지역마다 골고루 개설되어 있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로만 대학을 진학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터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방사선학과를 나와 그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소개하였다.

계열과 관련해서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을 위해 방사선학과는 물리 및 생물과 같은 과학을 잘해야만 올 수 있을 것 같은 편입 견을 깨고자 방사선학과의 커리큘럼을 소개하고 오히려 문과 계열의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도 많으며 이들도 잘 적응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있음을 알리기도 했다. 병원에서 일하는 방사선사의 요구역량을 소개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맞는 진로를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방사선학과 학생들도 잘 모르는 다양한 진로에 대해 소개하였다. 국내외 의료기관, 국내외 의료장비회사, 임상초음파사, 의학물리학자, 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 등), 방사선 및 원자력 관련 연구원, 방사성물질 등 방사성의약품 산업체, 비파괴 산업체, 공무원(보건직, 관세청-세관), 군무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법의조사관) 등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하고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배정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으나 학부모들이 잘 모르는 과이기 때문에 질문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강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50분의 강의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질문을 받아 당황했다. 안정적인 직업,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 가능성 등이 학부모님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 것 같았다. 질의응답 시간 중 나온 질문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3년제여도 취업에 문제없나요?
- 면허증은 취득하기 어려운가요?
- 대학병원을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나요?
- 업무 시 피폭의 위험성이 있나요?
- 현재 우리나라 면허증으로 해외 취업이 가능한가요?
- 석,박사 진학 시 어떤 과로 진학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대중들이 방사선사라는 직업군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고, 매체에서 강조되고 있는 방사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우리 직업군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게 하기도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의료 방사선의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돋기 위해 이런저런 답변을 하면서, 이러한 오해가 줄어든다면 방사선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강의 후기에 서도 학부모님들이 방사선학과에 대한 선호도 및 관심이 긍정적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에도 더욱 중요한 분야라고 여겨지는 의료 서비스 분야와 깊은 관련이 있는 방사선사 및 방사선학과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각 학교 및 병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해 본다. 필자 또한 유튜브, 기사 등을 통해 방사선사 및 방사선학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K**



## 코로나19 후유증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

글 백인성(이대목동병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까지도 지속되면서 의료진 모두가 업무를 하는 데 지쳐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코로나 확진 후에도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 후유증은 개인마다 조금씩 증상이 다르겠지만 감염 이전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COVID)19는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보고되고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말부터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공존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행하였습니다. 2022년 초에는 오미크론 변종이 나타남에 따라 확진자 수가 다시 급상승하였으며 2022년 11월 대한민국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기준 '100만 명당 인구 대비 확진자 수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나 코로나 확진자 수 상위 30개국 중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은 낮은 편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쉽게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 수와 더불어 코로나 격리 해제자의 대처에도 집중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코로나에서 완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 '롱 코비드(Long covid)' 완치 후에도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후유증이 남는 롱 코비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고 나서 격리가 해제된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두통, 만성피로감, 근골격계 통증, 미각 및 후각 장애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세포에 침투하여 인후부의 점막세포를 파괴하면서 인후통을 유발합니다. 점막세포는 점액질을 만들고 면역항체를 만들어 바이러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점막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점막은 점점 부어오르고, 점액질 분비가 힘들어지며 세균 감염이 되기 시작하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생되는 인후통을 관리하는 5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금물을 이용하여 가글을 하는 것

이 좋습니다. 소금(천일염)은 살균, 소독 효과가 있어 기관지의 세균을 죽이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소금물 대신 약국에서 파는 생리식염수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꿀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물도 소금물처럼 삼투압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발적된 부분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점액질을 부드럽게 만들며, 점막을 도포하는 작용을 하여 기관지의 통증 줄이는 동시에 보호하는 효과를 줍니다.

셋째, 레몬·생강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비타민C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과 감염세포 제거에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또한 생강은 몸 안의 염증유발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몬·생강차를 이용한다면 비타민 C에 의한 작용과 생강의 의한 염증을 줄이는 작용, 두 가지를 이용해서 기관지의 염증을 빨리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지속적인 가습이 중요합니다. 습도를 높여주면 점액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고 면역계의 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목 주변 마사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 주변을 마사지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면 순환이 증진되어 염증으로 인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롱 코비드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걱정하는 사람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가래가 끼고, 목이 간지럽고, 기침이 나는 것은 몸속으로 침투한 이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정상적인 방어작용이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관지의 점막이 바이러스에 의해 손상을 받으면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일종의 면역반응입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는 세포인 백혈구가 바이러스를 잡아먹고 염증반응을 일으킵니다. 염증반응에 의해 죽은 세포와 점액질이 섞여 나오는 것이 가래입니다. 이렇게 생기는 가래가 끈끈하고 젉은 가래가 되면 기관지에서 뺏어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기침을하게 됩니다.

코로나에 감염되고 나서  
격리가 해제된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두통, 만성피로감, 근골격계 통증,  
미각 및 후각 장애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래가 짙어져서 뱉기 힘들 때 가래를 뚫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뚫은 가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몸 안의 수분 증가를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고 가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래가 뚫어져서 어느 정도 배출이 되었지만 손상된 점막이 예민해져서 목이 간지럽거나 마른기침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점막이 손상에서 빨리 회복하려면 점막 주변에 기관지벽의 구조를 담당하는 콜라겐 성분이 빨리 생성이 되어야 하는데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은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를 섭취하면 손상된 점막 주위에 콜라겐 합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점막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베타카로틴에 대표적인 당근과 라이코펜에 대표적인 색이 짙은 채소와 토마토, 그리고 십자화과 채소의 대표적인 브로콜리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점액질 분비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U가 함유된 양배추를 섭취하여 마른기침, 가래가 짙은 기침에서 빨리 회복되어 롱 코비드 후유증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몸은 완전히 회복됐는데 후각과 미각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의 이유로는 후각과 미각 신경세포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일시적으로 기능이 손상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후각과 미각을 되찾으려면 코와 혀를 자극하는 재활 운동이 필요합니다. 재활 운동엔 계피, 겨자, 식초처럼 강한 향과 맛이 나는 음식이 유용합니다. 강한 단맛, 짠맛, 쓴맛, 매운 맛이 나는 음식을 섭취해보고 맛이 느껴지면 미각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물을 음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질감과 온도를 가진 음식을 먹으면서 입안에서 느껴지는 맛과 모양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각과 후각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잃어버린 일상 입맛과 함께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로는 롱 코비드에 극복에 도움이 되



는 영양소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단백질의 기본이 되는 아미노산(Amino acid)입니다. 아미노산은 간에서 해독하는데도 쓰이고 몸을 잘 작동하기 위해선 효소계가 잘 작동하여야 하는데 효소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좋은 고기와 해산물을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균형이 무너진 면역체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비타민A는 피부에도 눈에도 중요하지만 면역을 빨리 회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다수의 색이 짙은 채소에 비타민A가 많이 들어있고, 대표적으로는 당근, 브로콜리가 있습니다. 셋째, 비타민B는 체내 에너지 대사와 활성화에 관여해 면역 강화 성분의 활동을 돋습니다. 비타민B가 많이 포함된 토마토, 버섯 브로콜

리, 시금치 등을 섭취하시면 면역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비타민C는 바이러스 성장을 줄여주며 면역력도 끌어올리고 콜라겐을 생성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는 시큼한 음식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렌지, 키위, 레몬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섯째, 비타민D는 뼈에도 좋지만 면역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체내에 비타민D가 부족하면 코로나 증상이 악화되며 고용량의 비타민D를 섭취를 통하여 코로나 증상이 호전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비타민D는 영양제로 섭취를 해도 되며, 버섯과 연어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마그네슘과 아연은 폐의 섬모상피세포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마그네슘과 아연은 견과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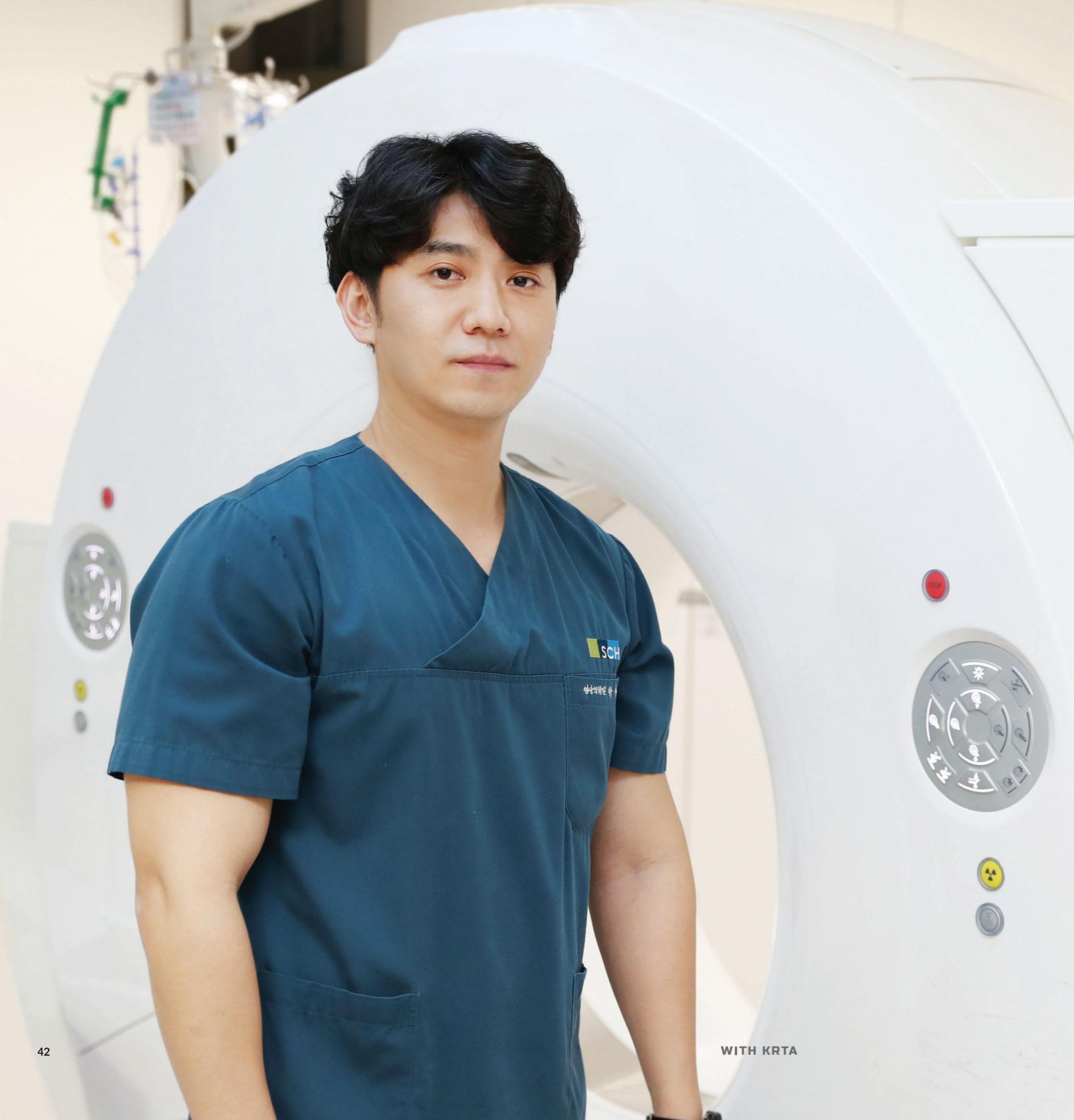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루테올린과 쿠세틴같은 식물에서 유래한 폴리페놀 계열의 화학물을 플라보노이드라고 합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염증완화 및 산화 스트레스 개선 및 인지기능을 보호하며 양파, 색깔이 다양한 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영양소들이 균형 있게 함유된 식단은 요새 많이 알려진 식단입니다. 지중해 식단이라고 하며 붉은 육류를 최소화하고 생선, 올리브 오일 등 불포화지방산과 견과류, 통곡물과 같은 식이섬유로 구성된 식단을 말합니다. 끝으로 너무 많은 영양제의 섭취는 간에 부담을 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영양소들을 균형 있게 잘 섭취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하시기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❾



## 건강한 소통

KRTA와 함께하는 공감 콘텐츠

- 42 Interview 심폐소생술로 시민 구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상우 방사선사
- 46 Essay 시선이 바뀐다
- 48 Thinking 리더십 III 조직을 이끄는 힘
- 52 Job “방사선치료를 위한 발명품 기술이전 체결을 하기까지”
- 54 Wisdom 돈(경제적 지원) 말고 고등학교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 58 Webtoon 숨 참으세요



심폐소생술로 시민 구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 박상우 방사선사

인터뷰 진행 미디어혁신이사 임기선



**Q** 미디어혁신이사 임기선 안녕하세요? 요즘 매체 여기저기에서 선생님의 선행을 들을 수 있는데요. 같은 방사선사로서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선생님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A** 박상우 방사선사 반갑습니다. 저는 2010년에 대구보건대학을 졸업한 후 대구가톨릭대학 병원에서 2년, 서울순천향병원에서 11년, 총 13년의 방사선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CT실에서 근무 중인 박상우라고 합니다.

**Q** 미디어혁신이사 임기선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20분경 이태원을 통해 출근하던 중 도로 위에 쓰러진 남성을 발견하고 약 5분간의 심폐소생술(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을 시행하셨습니다. 그 덕에 환자의 의식이 회복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쓰러진 분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A** 박상우 방사선사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몸 이 먼저 움직였던 것 같아요. 차에서 내려서 쓰러진 분을 봤을 때 의식이 없었고, 목과 코에 손을 대니 맥박과 호흡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입 안에는 이물질이 가득하고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에서 강직과 경련이 동시에 나타나 심정지 상황임을 직감했죠. 먼저 환자의 입안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기도를 확보한 뒤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어요. 근처의 택시 운전자분께는 119신고를 요청했고, 또 다른 행인분께는 환자의 신발을 벗기고 마사지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며 중간중간 환자의 의식을 확인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이 환자를 살려야겠다는 간절함으로 정신없이 심폐소생술을 했던 것 같아요.

119차량이 현장에 도착할 무렵에야 움찔하며 호흡이 돌아왔고 순천향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환자가 건강히 돌아가서 정말 다행입니다.



66

방사선사의 소명을 갖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방사선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보건의료인으로 새로운 사례를 만든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99

**Q** 미디어혁신이사 임기선 13년 동안 방사선사로 근무하시면서 여러 환자분을 마주하셨을 텐데요. 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가지게 된 선생님만의 철학이나 신념이 있으신지요?

**A** 박상우 방사선사 평소 일하면서 다양한 상황을 마주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냉철하게 상황을 확인한 뒤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 최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미디어혁신이사 임기선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보건의료인의 위상이 제고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무하시면서 느낀, 우리 방사선사가 앞으로 주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박상우 방사선사 앞으로 또 다가올 수 있는 월드 팬데믹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는 다양한 검사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팬데믹 상황에서도 환자를 안전하게 검사하고,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고의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같습니다.

**Q** 미디어혁신이사 임기선 방사선사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A** 박상우 방사선사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 밖에서도 이번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제 아이가 올해 7살인데 MBC에 아빠가 나오는 걸 보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더라구요.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자랑한 덕분에 소문이 퍼져서 동네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하하 언론사에 보도되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보다 자랑스러운 아빠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좋아요. 아이에게 5살 때부터 심폐소생술을 알려주고 놀

이처럼 하고 있는데 누구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어서 급박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 미디어혁신이사 임기선 선, 후배 동료 방사선사와 대한방사선사협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박상우 방사선사 병원, 비병원을 떠나 어떠한 포지션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꾸준하게 자기 개발을 하면서 방사선사의 궁지를 갖고 발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협회에서는 저희 방사선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과 방법을 모색해주시면 사회 전반적으로 방사선사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평소 긴박한 상황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시민을 구하는 사례를 종종 접할 수 있는데, 방사선사의 사례는 처음이라 가족들, 특히 함께 방사선사라는 직업을 갖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형(박영우)이 굉장히 뿌듯해하고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저도 모르는 방사선사 선생님께서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하다. 고맙다”며 알음알음 연락주신 적도 있고요.

제가 방사선사의 소명을 갖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방사선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보건의료인으로 새로운 사례를 만든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또 방사협보로 제 글을 접하는 분들께서 ‘형제가 모두 방사선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니, 직업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구나’라는 인식을 주고 싶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주저 않고 달려가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방사선사 선생님께서도 직접적인 책임을 떠나서 인간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전국에 계신 방사선사 선생님들, 힘내세요!



### '인간사 새옹지마'라는 속담 속의 새옹지마는

중국 전한 시절 회남왕 유안이 편찬한 철학서 '회남자'의 '인간훈(人間訓)'에 나오는

새옹지마(塞翁之馬)가 고사성어로서 지금까지 회자하고 있다. 사람의 운수는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

늘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일들을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때,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을 듯하다.

영원한 강자도 끝없는 패자도 없음이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닐까?

삶에 있어 모든 것이 그러하듯 긍정의 기능과 부정의 기능은 '누가 그걸 사용하느냐에 달렸다.'라는 말에

새삼 느낌이 진하게 와닿는 경험을 했다고 할까?

## 시선이 바뀐다

글 양한준(前 을지대 교수)

여행도 할 겹 집안일로 미국에 사는 딸과 함께 지냈다. 약 6개 월이었지만, 중간에 귀국해서 보낸 날까지로 보면, 1월 말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예년과 비교해 눈이 자주 내린다고 했다. 그 때부터 8월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때까지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특별한 날들이었다.

5살 되는 손자의 재능 수업 시간을 따라다니면서 미술 선생님과 몇 번의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다. 묻는 말에 평소 느낌을 말 했더니 스케치를 같이해 보자고 했다. 선뜻 나서지 못하고 망설였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쉬운 요령을 설명해 준 덕에 드

로잉 권유에 따랐다. 스케치북을 펼치고 바라보니 금방 어떤 말을 들었는지 눈앞이 하얘진다. 다른 사람이 그런 그림을 보면서 그리는 것이 모작이다. 나의 시작이다. 고민할 것이 없다. 보이는 대로 그대로 따라 그리면 되게 유도해서 연필을 잡았지만, 맘대로 쉽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공개된 상황에서 어설프게 그려진 그림을 보여주자니 창피한 기분도 있었다. 그러나 선생님이 몇 군데 집중적으로 수정하면서 요령을 말해주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고 느껴졌다. 그렇지만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중학교 미술 시간에 선생님

따라 그렸던 몇 번의 그림을 그려본 것이 전부다. 수정해 주는 선생님의 손놀림에 정신이 팔렸다. 너무 자연스럽다. 연필에 전달되는 노련미의 느낌을 눈앞에서 보여주면서 설명해 준다. 오래전에 읽은 책 속의 그림에 관한 내용도 조금씩 떠오른다. 다시 연필을 잡고 내가 그린 그림을 보았다. 조금 전보다는 다른 느낌이다. 이렇게 머뭇거리다 한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다. 생각 같아서는 맘먹은 대로 될 때까지 그려보고 싶었지만, 정해진 시간이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숙제로 받아서 집으로 왔다. 저녁을 먹고 딸이 용기를 내게 해 준다. 생각보다 쉽게 따라 했다고 얼려준다. 이제 손자도 딸도 연필을 잡고 각자 그림을 그렸다. 저녁밥을 먹고 난 식탁은 미술 시간이 시작되었다. 지난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가족이 함께 떠드는 즐거운 공유의 시간이 되었다. 장난감을 마구 쏟아 넣은 상자 속 밑에 깔려 있던 색연필까지 총동원되었다. 이제 연필부터 크레용까지 새로운 상자에 곱게 담기는 정도로 발전하였다. 덕분에 훌어져 있던 필기구들이 한데 모이는 일기양득의 효과까지 말이다. 둘째 시간부터는 생각을 표현하기도 수월해졌다. 읽었던 책 속에서 그림에 대한 효과와 화가의 기법 등 간접적인 경험의 기회를 가졌던 것은 큰 힘이 되었다.

숙제 검사를 받았다.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받았지만 처음 해보는 수준으로는 잘하는 것이라고 에둘러 칭찬을 곁들여 준다. 덕분에 쑥스러웠던 기분도 사야 들었다. 빛의 방향 그림자의 표현과 명암 처리 시 엣지와 중심부 빛의 효과를 직접 느끼고 표현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원형과 사각형의 입체화 느낌을 살려 나갔다. 연속되는 선과 꺾이는 선의 조화 표현에 집중하였다. 드로잉하는 마음은 별씨 퍼카소가 되었지만, 이 어설픈 상태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둘째 시간도 이렇게 지났다. 숙제를 주면서 파스텔을 재료로 내주었다. 이번에는 스케치한 후에 파스텔로 색깔을 표현해 보라고 한다.

일주일 중에 6일을 파스텔로 낙서 같은 그림을 그렸다. 주변이 파스텔 분말 때문에 난장판이다. 색깔의 조화를 만들기 위해서 손자의 색칠 공부하는 밀그림을 이용했다. 크레용을 같이 칠하면서 느낌을 가져보았다. 파스텔 색조라고 색감을 표현했던 게 이런 느낌이라는 것도 새삼 실감한 순간이다. 이번에는 색연필로 채색하는 방법을 시도해 봤다. 색연필은 파스텔처럼 분말을 만들지 않아 뒤처리하기가 쉬웠지만, 밀그림을 지우기가 쉽지 않았다. 경험 없이 연필로 스케치한 어려움을 감지하고 연한

미술 작품이란 인간의 열정을 통해 자연을 관찰하는 것이다.

66

99

색의 색연필 밀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한 번 더 시도했다. 이렇게 시작한 그림의 경험은 내게는 아주 흥미로운 세계가 되었다. 우선 지루한 타지의 일상생활이 바뀌었다. 틈나는 대로 다양한 미술 재료들에 대해 찾게 되었고 주말에 일정을 잡아 하버드아트뮤지엄도 관람하면서 그림에 대한 감각을 대화의 주제로 하게 되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성지 같은 랙포트까지 탐방하면서 호기심을 키웠다. 내 모습도 그려보았다. 내가 나를 그려봤지만 나 같지 않다. 유명한 화가들이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 것을 보고 관찰력과 집중력을 새삼 부려워하게 되었다. 그림은 자기만의 시선으로 보고 느낌을 찾아 표현하는 것이 매력으로 다가왔다. 사물들이 나름대로 멋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평소의 시각을 넘어,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는 능력의 묘미를 느낀다.

이제 무심코 지나치는 차창으로 보이는 것들이 한평생을 살아온 주변과 이곳 미국의 작은 부분이지만 다른 느낌을 찾게 한다. 여행의 즐거움에 그림이 주는 감성까지 보고 생각하고 표현해 보는 즐거움이 새록새록 많아진다. 나무도 보고 둑도 보는 시선, 멀게 보이는 것과 눈앞에 보이는 것의 다양한 기쁨이 커진다. 그림을 모르고 편하게 봐 넘기던 차원이 다르게 보인다. 그림으로 그리려면 어떤 게 중심이 되고 어떻게 나타내 보일 것인지, 그 차원을 다르게 할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또 보이는 그 내막에 대해 찾게 되고 서로 같거나 다른 것에 대한 역사도 찾아보게 된다. 한 장의 그림이 완성되면 남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만의 느낌으로 즐기게 된다. 또 과정을 되짚어 보는 시간도 즐기게 된다. 내가 존재하는 주변의 것들에 대한 애정도 깊어진다. "미술 작품이란 인간의 열정을 통해 자연을 관찰하는 것이다."라는 말은 대문호 에밀 졸라의 말이다. 이 말 속엔 긍정이 되는 부분도 부정하고 싶은 부분도 있다. 그러나 문맥이 주는 뉘앙스를 생각하면 미술이 내게 가까이 오게 된 것이 좋다. 나이 들이라는 것은 세월이 익어간다고 느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본의 아니게 미술 유학 여행을 즐기게 되었다. **K**

지난 392호에서 우리는 전통적 리더십 이론(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을 살펴 보면서, 시대적 리더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번에 나눌 이야기는 현대적 리더십 이론들을 살펴보며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리더십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방사선과(영상의학과)의 발전과 미래에 무엇이 필요한지 통찰해 보도록 하겠다.

### 리더십 III

## 조직을 이끄는 힘

글 양진영(로고스코칭센터 송실대학교 경영학부)



현대적 리더십 이론은 1980년대 이후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발전해 왔다. 현대적 리더십 이론이 등장한 사회적 배경에는 1970년대 석유 파동이 있다. 1970년대 두 번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1930년대 경제 대공황 이후 세계 경제는 큰 혼란에 빠졌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기업들마다 경영 손실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화가 가속화 되었고 사회 구조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를 요구했다. 이러한 경영 환경의 변화는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경영 구조와 방식을 새롭게 디자인하게 하였고 기업들 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다(Kotter, 1990).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했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리

더십이 요구되었다. 1980년대 이후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리더십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새로운 리더십 이론에는 대표적으로 변혁적 리더십, 전략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수퍼리더십, 감성적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셀프 리더십, 코칭 리더십, 진성 리더십 등이 있다. 새롭게 등장한 리더십들은 '통제-지시-처방'이라는 과거 리더의 주도적인 관리와 수직 관계에 의한 일방적 지시가 아닌 구성원과의 수평적 관계 안에서 상호작용하고 구성원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리더십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자율적이면서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조직을 지속 성장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새로운 리더십이론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함양해야 할 리더십을 생각해 보자.

### 코칭리더십

코칭은 개인과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두고, 원하는 목적(목표)을 달성하도록 돋는 대화 프로세스이다. 1980년대 이후 현장에서는 보다 활용 가능한 실천적 리더십이 요구되고 리더의 역할과 함께 구성원의 역할에도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조직의 구조가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으로 변화하고 물적 자원 중심의 경영 방식은 인적자원개발 중심으로 초점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조경주, 2019).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조직 구성원의 잠재력과 역량개발, 동기부여를 통한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추었고 성장과 발전에 초점이 맞춰진 코칭이 경영현장에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조직의 리더는 리더십을 통해 조직 구성원을 성장시키고 역량개발과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동양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념이 코칭 리더십이다. 즉, 코칭 리더십은 코칭적 요소와 리더십의 요소가 합해진

코칭은 개인과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두고, 원하는 목적(목표)을 달성하도록 돋는 대화 프로세스이다.

연구자	코칭 리더십에 대한 정의
Stowell(1986)	코칭은 구체적인 기능이나 행동을 포함하는 프로세스로서, 리더가 토의나 대화로 개입 또는 중재하는 것이다.
Stowell(1988)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리더가 조직구성원의 학습과 성장을 촉진하는 행동
Haberleitner(2002)	구성원이 자기 스스로 가능성을 인식하고 능력과 의욕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구성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리더십
Greene and Grant(2003)	조직 구성원 스스로가 능력을 성장시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고, 리더의 결과 지향적 행동방식
최치영(2003)	상대방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업무성과를 향상시키며, 문제인식과 자각을 돋고, 역량개발을 강화시키는 일련의 프로세스
Lucke(2004)	조직의 관리자나 감독자가 구성원의 가능성을 개발하도록 조력하고 성과와 목표달성을 이루어 내는 상호작용의 과정
Hackman and Wageman(2005)	구성원들의 역량을 개발시키고 구성원들이 조직에 더욱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동
도미향(2008)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 탐구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자기주도적인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파트너십
Whitmore(2009)	리더가 구성원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그들이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고, 동기부여를 통해 잠재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이동우(2011)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부여와 업무과정을 지도·개발시키며, 열정과 자신감 향상에 상호 영향력의 행사과정
탁진국·조은현(2011)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발전하도록 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스스로 성취하도록 촉진하고 지원하는 리더십
박재진(2012)	조직 안에서 리더와 구성원 간의 파트너적인 관계를 통하여 조직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김수정(2015)	리더와 구성원과의 수평적인 신뢰관계 안에서 구성원 스스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하고 직무수행과정을 평가하며, 경청, 질문, 피드백을 통해 조직성과에 영향력을 달성하도록 하는 행동양식
박해란(2018)	조직의 목표달성과 본질의 문제를 파악하고, 현재 상태를 진단하여 개선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실행함으로서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극대화하는 것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코칭 리더십은 조직의 리더가 구성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역량 개발을 강화시키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한 코칭 리더십의 가장 큰 특징은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이다. Stowell 박사가 말하는 코칭 리더십의 네 가지 하위 요소에는 ‘관계’를 포함 시키고 있다. 코칭은 코치와 고객 간의 수평적 관계 안에서 고객 중심적인 언어와 태도를 지향할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지시-통제-명령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하 수평적 관계를 맺고, 구성원의 자존 가치를 인식하고 구성원의 자발성을 촉진시키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다.

이전에도 필자가 언급했듯이 우리 방사선과는 전통적으로 남성적 문화가 강세를 띠고 있으며, 유교적 문화가 관습적으로 남아 있다. 조직의 리더는 구성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원하기 보단, 명령과 통제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체적이다. 이러한 조직 속에서 구성원의 자발성이나 성장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 또한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된



다. 앞서 살펴본 바, 코칭 리더십의 정의에서 리더의 역할은 구성원의 잠재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구성원의 학습과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평적 관계를 맺고 지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리더의 코칭 행동은 조직의 구성원을 보다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직무만족 및 조직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코칭 리더십과 조직 유효성 간의 실증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우 긍정적인 인과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서 말하는 조직 유효성이란 조직이 효과적 또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목표 달성 정도 또는 조직의 성공을 나타내는 지침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 유효성의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지표로는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만족, 조직에 대한 몰입도, 이직 의도, 고객 지향성, 조직 시민행동, 자기 효능감, 직무성과, 혁신행동, 조직 애착, 직무 동기 등의 개념으로 측정·평가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리더의 코칭 행동이 구성원의 직무를 만족시키고 이직 의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코칭 리더십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생각을 자극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새로운 인식 변화를 이

끌어 내기 때문에 조직에 몰입하게 되고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며,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양일선 외, 2015; Whitmore, 2010). Theebboom et al. (2014)은 조직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코칭 효과에 대해 다양한 조직 유효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직무수행 및 기술, 대처능력, 웰빙, 목표지향적 자기조절, 직무태도의 다섯 가지 영역에서 코칭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홍진숙·김양진 (2020)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코칭 역량과 조직몰입,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간호사의 코칭 역량이 조직몰입과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칭 역량이 높을수록 조직몰입 및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리더의 코칭 행동 즉 코칭 리더십을 가지고 구성원들을 대하는 리더의 태도는 조직구성원들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내고 조직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영상의학과의 모습은 어떠한가? 또한 방사선과의 교수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우리는 후배들 또는 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더인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들의 잠재력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가? 그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깊은 교감을 하고 있는가? 구성원들과 제자들과 수평적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존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구성원들을 이용하고 있는가? 나의 편의를 위해 구성원들을 이용하지 않는가? 권리와 직위를 이용하여 구성원들을 괴롭게 하고 있진 않는가? 진정 제자들의 인생과 삶을 위하기 보단 자신의 성과를 위해 지도하고 있진 않는가?❾

2차 산란선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을 방어하여  
암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방사선치료를 위한 발명품 기술이전 체결을 하기까지”

지식재산권 전문가, 연세의료원 안승권 방사선사

글 안승권(세브란스병원)

연세의료원과 (주)닥터서플라이가 지난 해 11월 29일 ‘방사선 치료를 위한 유방 고정용 보조기’ 및 ‘방사선 치료를 위한 산란선 차폐 속옷’ 개발을 위한 2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국내 특허 6건, 국외 특허 4건(PCT, 미국, 중국, 유럽) 및 2건의 노하우가 기술이전 대상으로, 총 12건의 지식재산권을 기술이전하였습니다. 2020년 신영와코루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에 이어 2~3번째 성과입니다.

‘방사선 치료를 위한 유방 고정용 보조기’는 유방암 환자의 방사선치료 시, 종양에는 방사선량이 적게 전달되도록 최적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으며, 2~3주간 진행되는 방사선치료에서 호흡에 의한 종양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환자 자세의 재현성 및 정확성을 탁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성 환자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어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위한 산란선 차폐 속옷’은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 또는 방사선치료 시, 고에너지 1차 방사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산란선에 의한 방사선 피폭을 방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차 산란선은 검사와 방사선치료의 영역 밖에서 정상 조직과 장기에 장해를 일으켜 또 다른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2차 산란선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을 방어하여 암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연세암병원에 입사하여 23년째 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서 공부하다 보니 현재 방사선치료전문방사선사, 임상초음파사(상복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식재산권 멘토(의료/안전 분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국내 특허 34건, 국외 특허 7건, 상표권 1건, 노하우 3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기업에 소개한 특허는 73.2%,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특허는 48.8%, 기술이전에 성공한 특허는 26.8%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허를 획득하는 것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면 바른길로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6개월 남짓 준비하여 첫 특허 출원서를 받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새로운 영역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고 보편적인 권리로 만드는 작업의 보람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허를 획득하고 기술이전을 위해 하나하나 단계를 넘어갈 때 느끼는 설렘도 있겠지만, 후배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걸어왔던 길을 따라오는 것을 목도하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며, 후배들에게 앞서 나가는 선배로서 얘기해줄 거리가 있다는 것도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의의가 자신만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있다면, 기술이전은 그 권리를 마케팅하여 금전적인 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노하우가 쌓인다면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기술이전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식재산권은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면서 기술이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진행한다면, 그 지식재산권의 유지비를 지급해야 하는 4년이 도래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들의 철저한 조사와 수요 등의 체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 기술이전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냐고 질문한다면, 저는 “발명품에 대한 확신과 집요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위해 70여 개 업체에 미팅을 제안하여 22개 업체를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중 14개의 기업과 비밀유지계약

서를 작성하고, 경영진과 회의실에 모여 앉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돌아보면 영업 직원의 마인드를 바닥부터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잡고 한참을 기다리다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바쁘다고 전화 도중에 상대방이 그냥 끊어버려서 자존감이 떨어졌던 여러 장면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모두가 축하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일이 생긴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발짝 뒤쳐졌다고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던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옳다고 생각한 길은 고개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 기술이전 소식은 언론에서도 22건 이상 기사화되었습니다. 발명품의 성공적인 데뷔입니다. 기술이전 계약은 특허의 관점에서는 종착역일지는 모르겠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연구자로서는 20년이라는 계약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기술이전을 이뤄가는 과정이 ‘쉽지 않은 여정’이었고, 지금도 두 프로젝트에 대하여 임상시험 계약이 진행 중이기에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기술이전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더욱 앞으로 나아갈 확신이 있기에 더욱 기대되고 여기서 얻은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힘을 내게 만듭니다. 뭐든지 시작이 어렵지, 경험이 쌓이면 재밌어지고 능숙해집니다. 지식재산권의 획득과 기술이전의 비결에 관심 있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방사선사 선배로서 후배들과 경험을 나누는 것은 저에게는 활력이고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승권 askwon@yuhs.ac)❶

진학사에 운영하는 멘토링 무료 강좌에 현직자 멘토로 강연하게 되었다. 평일 저녁 강연이었음에도 무려 20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하셨고 질의응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서 '방사선사'에 대한 관심이 제법 뜨겁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진로 강연이었음에도 신청자 대부분이 학부모라는 건 조금 아쉬웠다. 강연이 끝나고 멘토링을 총괄하는 매니저님에게 학부모 중심으로 강연을 운영하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공부만 하기에도 벅찬 게 고등학생 현실이죠. 그런 상황에서 대입은 정보가 중요하다 보니, 결국 부모님이 정보를 모으고 정

제하여 자녀를 지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정 보는 한때 화제가 되었던 '스카이 캐슬'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요즘 대입은 공부 외에도 챙겨야 할 것이 많아서 이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니저님의 이야기를 듣고 학원 외에 무엇을 더 도와줘야 할지 막막해 하던 동료 선생님들이 떠올랐다. 학부모라면 한 번은 고민하게 되는 주제라고 생각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진학사의 멘토링 총괄 매니저님을 인터뷰해보았다.

## 돈(경제적 지원) 말고 고등학교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글 심지나(세브란스병원)



WITH KRTA

자녀가 부모님의 도움을 잔소리로 여기지 않으려면  
부모님이 입시를 공부하고 이를 근거로 설득시켜야 합니다.

에서도 중요하게 평가하는 활동이 따로 있거든요. 공부부터 학교생활까지 자녀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부모님이 가이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안정감 있게 입시를 준비하고 부모님을 의지할 수 있는 관계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다만, 자녀가 부모님의 도움을 잔소리로 여기지 않으려면 부모님이 입시를 공부하고 이를 근거로 자녀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Q** 공부를 하는 것도 대학을 가는 것도 자녀가 하는 건데,  
과연 부모가 줄 수 있는 도움이 있을까요?

**A** 제제가 멘토링 무료 강좌를 운영하면서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 학부모님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개인마다 다르기는 했지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부모님을 '대입 공동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 드리자면, 자녀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부모님과 논의하고 함께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보통은 부모님한테 숨기거나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관계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경제적 지원 이외에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강연 중 자녀를 카이스트에 보낸 학부모님의 강연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분의 경우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내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태도로 지도하셨다고 해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력자 역할을 하고 싶어도 자녀와 소통 자체가 되지 않는 분이 많아요. 이때 자녀를 대하는 본인의 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고 마냥 기다리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대입에서 부모님의 역할을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지 않지만 틈틈이 자녀와 의논하고 함께 해결해가는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Q** '부모님의 도움'이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A** 자녀에게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신도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과목이 있고 학교생활

**Q** 부모님들이 입시까지 공부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A** 학부모라면, 입시는 대략적인 흐름만 파악하면 됩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배경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입은 정말 간단합니다. 수시와 정시로 나뉘고 수시는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정시는 수능, 수시는 내신으로 진학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시에서는 내신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교과전형과 내신과 학교생활기록부 전반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구분됩니다. 전형의 유형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학은 65% 정도를 수시로 선발하기 때문에 자녀가 저학년이라면 수시 중심으로, 이 중에서도 선발비중이 가장 높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2024학년도 수시, 정시 모집 비율

권역	수시모집	정시모집
수도권	64.4%	35.6
비수도권	88.1%	11.9%

2024학년도 전형별 비율 비교

권역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실기	수능
수도권	20.9%	29.5%	7.3%	8.5%	33.7%
비수도권	61.5%	19.6%	0.8%	7.8%	10.3%

수도권 대학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Q** 저학년이면 학생부종합전형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A** 첫 번째는 내신 등급을 잘 관리하는 거겠죠. 신중에 신은 내신이라고 할 정도로 대입에서 내신 등급은 대학 간판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여기에서도 분명 공부는 아이가 하는 건데, 부모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생각하실 거예요. 자녀에게 맞는 학원, 과외를 찾아주는 것 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설명해드릴게요.

이건 자녀를 서울대 보낸 학부모님의 팁인데요. 그분의 경우 자녀 학교의 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수집하셨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퀄리 문항이 어디에서 출제되었는지를 정리하셨더라고요. 이런 정보는 학원을 통해서 쉽게 모았다고 해요. 시험기간에는 ‘~이거 했어?’라고 물어보기보다 ‘엄마가 알아보니, 수학은 부교재의 연계도가 높아 이 교재들의 기출을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고 퀄리 문항은 수능 유형 수준까지 나와 틀리는 아이들이 많아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녀가 스스로 학습 상황을 돌아보게 했다는 게 인상 깊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자녀의 경우 진도 나가는 것에 급급하다 보니 기출 유형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학원도 많은 학생을 관리하다 보니 이 부분이 약해요. 그렇기에 부모님이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정리해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학원에 다니지 않는다면 족보닷컴(<https://www.zocbo.com/>), 내신코치(<https://www.nscoach.com/>)와 같은 기출 사이트에서 전년도 시험지를 쉽게 구할 수 있고 특히 수학은 판다라는 앱을 사용하면 선생님이 어떤 교과서, 문제집을 참고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Q** 내신 다음으로 해줘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A** 비교과가 부모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영역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내신과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요. 비교과는 내신 외 모든 것을 의미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비교과는 학교 생활 전반을 의미하고 이를 기술한 서류가 학교생활기록부죠. 여기서 문제는 대학 진학에 중요한 평가 요소인 학교 생활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아이들도 막막해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모두 잘할 수 없으니 대입에서 중요한 것부터 쟁겨야겠죠?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가 간소화됨으로써 대입에 반영되는 항목도 많이 축소되었어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를 확인해주시고 저는 여기서 집중해야 할 부분을 설명해드릴께요.

**고등학교 기출 분석	
수학1	출제난이도
	최상(인근 고교에서 제일 어렵다)
	부교재
	모의고사 퀄리문항, 올림포스 고난도(EBS)
	교과서 예제 문제 변형 또는 증명 예시 출제
	부교재의 연계도가 높은 편 부교재의 변형까지도 확실히 풀 수 있어야 함
수학2	퀴리 문항
	수능 문제 퀄리문항이나 블랙라벨 수준 정도로 출제
	부교재 3회독 + 기출까지 풀어보기 시험이 너무 어려워 다 풀지 못할 것을 각오하기 문제라도 틀리지 않겠다는 마인드가지기

학부모가 학교 기출 유형을 정리한 예시

수상, 독서, 봉사가 대입에 미반영됨에 따라 세특,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이 중요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생기부 항목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자녀의 학업 우수성이나 전공에 대한 관심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흔히 줄여서 세특이라고 하는데, 세특은 보통 수행평가 내용이 기술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자녀의 학교생활에서 내신 다음으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바로 수행평가는 겁니다. 내신 성적에 수행평가가 40% 반영되기에 중요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질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행평가 점수보다 그 주제와 탐구 내용이 대학 갈 때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중간고사 끝나고 수행평가를 몰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자녀가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도 시간 안배가 중요합니다. 연세대 의예과 멘토는 방학 때 탐구 주제를 어느 정도 정해 놓았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자료조사까지 해놓고 수행평가 기간에는 이를 토대로 발표자료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주제와 자료조사를 하면 과목 간의 연계 탐구도 수월하고 무엇보다 관심 분야에 대해서 깊게 탐구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깊이 있게 하지 않고 자료 조사 정도로 그치는 것도 이런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자녀와 탐구 주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교과서의 날개 개념이나 부모님이 본 뉴스를 통해서도 충분히 탐구 주제를 찾아낼 수 있어요. 탐구 아이디어는 부모님이 찾아봐 주시면 자녀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교과서 날개 개념 예시



교과서 날개 부분에서  
교과 지식을 확장 또는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내용이 많음

세특 다음으로는 동아리, 진로활동, 자율활동이 중요한데요. 이 활동들도 앞에서 언급한 탐구 아이디어를 많이 쌓아 놓으면 유리해요. 수행평가의 탐구주제를 동아리나 진로활동에서 쉽게 확장 시킬 수 있거든요. 보통의 아이라면 방향성 없이 학교생활을 할 거예요. 그렇기에 부모님이 비교과의 우선순위를 알려주시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겨울방학 때 탐구 주제를 함께 고민해주세요. 입시 제도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학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입시 ‘공부’에 너무 큰 부담감을 느끼기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녀에게 정서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자녀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초점을 맞춰 준비하면 하나의 공동체로서 더욱 효율적인 입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❶



# 숨 참으세요

툴

## 22. X-Ray (방사선) 下

웹툰 형식으로 아래로 길게 읽어주세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듣는 질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사선은  
병원에서 보는 의료 방사선  
그리고 원전 사고의 방사선이라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드라마틱한  
각인 효과를 주는 건  
역시 원전 사고의 방사선이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한 그렇다 보니  
원전 사고 후의 방사선학과 입학률은  
뚝뚝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 전국 방사선학과는 3년제 4년제가 있습니다.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방사선을  
항상 우리가 맞아 왔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세상의 모든 것에선 방사선이 나오고 있고

우린 평생 맞으며 살아갑니다  
이게 자연 방사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몸에서도 나오죠



그렇기에 우리 몸은  
어느정도 방사선에 면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해가 되실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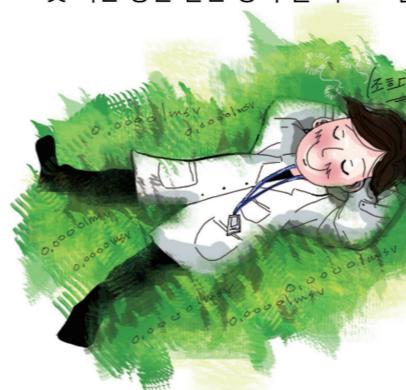
일반 촬영 중 가장 많이 촬영하는  
폐 촬영의 양은

0.1~0.38 msv

1년에  
우리가 받는 자연 방사선의 양은  
평균 3msv

· msv는 방사선쪽에서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어찌보면 폐 사진 한장은  
꽃밭이나 풀숲에서  
몇 시간 동안 받는 양이 될지도 모릅니다.



맞고 지나가는 투과의 일반적인 의료 촬영보다  
원전 사고로 인한 높은 방사능의 직접적인 흡수는

\* 방사능은 쉽게 방사선이 강하고 악함의 세기를 말합니다



방사선에 맞아 문제가 생기기 위해선  
평균적으로 1년에 100msv를 맞아야 합니다.

(몸 전체가 아닌 한 부분이 100msv를 맞아야 합니다.  
손과 발은 더 수치가 높습니다)

논문에서는 그 후에 재생불량성 빈혈이 생길 수 있다 합니다.

\* 증상은 빈혈에 의한 무기력, 피곤감, 두통등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촬영해서 빈혈 오는 것 같아요우

오늘 가서 고기먹어

만능 약 맛있는 음식.

가끔 촬영이 많을 때 장난으로 우리들끼리 말하곤 합니다.

의료 방사선으로 암이 생기는 일보다  
스트레스로 암이 생기는 경우가 더 쉽고 빠르죠.

그러니 여유롭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간만에 일본에서 거주 중이신 지인분과의 만남



'숨 참으세요'는 네이버 도전만화와 애니원툰에서 연재되었던 웹툰입니다.

네이버 <http://comic.naver.com/challenge/list.nhn?titleId=690698>애니원툰 [http://anyonetoon.com/AocWebtoon.aoc?webtoon\\_num=57&](http://anyonetoon.com/AocWebtoon.aoc?webtoon_num=57&)

# 2023년 대한방사선사 춘계학술대회



**일 시** 2023년 4월 21일(금) ~ 2023년 4월 23일(일)

**장 소**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슬로건** 새로운 미래, 도전하는 방사선사!  
New future, Challenging Radiological Technologists!

**주 최**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후 원**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컨벤션뷰로

## 대회일정

구분	내용	시간	장소
전문연수회 4월 21일(금)	등록 및 접수	13:00 ~ 14:00	제주 서귀포시 빠레브 호텔 대연회장
	개회사 및 과정소개	14:00 ~ 14:30	
	연수교육	14:30 ~ 17:30	
	질의응답	17:30 ~ 18:00	
학술대회 4월 22일(토)	등록 및 접수	09:00 ~ 16:0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 JEJU) 한라홀 (3F)
	포스터 논문전시	09:00 ~ 17:00	
	방사선장비 및 기자재, 조영제 전시	09:00 ~ 18:00	
	회원 및 재학생 논문발표	09:00 ~ 11:30	
	중식(개별식사)	12:30 ~ 13:30	
	개회식	13:30 ~ 14:30	
	심포지엄	13:30 ~ 15:00	
	초청특강	14:30 ~ 15:30	
	시도회장과 전문학회장 간담회	16:00 ~ 17:00	
	각 전문분야별 강좌	16:00 ~ 18:30	
	폐회식	18:30	
문화체험 4월 23일(일)	제주문화탐구	09:30 ~	

\* 상기 일정표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Quiz 이벤트

방사협보 제394호를 잘 읽어보셨나요?  
아래 퀴즈의 정답을 모두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퀴즈 이벤트 QR코드로 접속하여 응모해 주세요.



응모기간 5월 1일 ~ 6월 11일



\* 퀴즈이벤트는 방사선사만 참여 가능합니다.  
※ 당첨 상품은 개별 발송하며, 6월 28일(수) 이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당첨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등** 골드바 반돈 (2명)

**2등** 신세계 10,000원 상품권 (20명)

**3등**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00명)

## 방사협보 제393호 퀴즈 이벤트 1등 당첨 후기

저는 2001도에 미국에 가서 살다가 10년만에 귀국을 했는데, 나이도 있고 10년이란 세월의 갭이 너무 커 솔직히 방사선사 업무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전공한게 이 일이라서 적잖은 나이에 힘들게 이곳저곳 알아보던 끝에 겨우 취업이 되었고 방사협보를 보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으며 10년의 공백을 되찾아가며 적응하고 즐겁게 일하고 있었는데 이런 행운까지 얻게 되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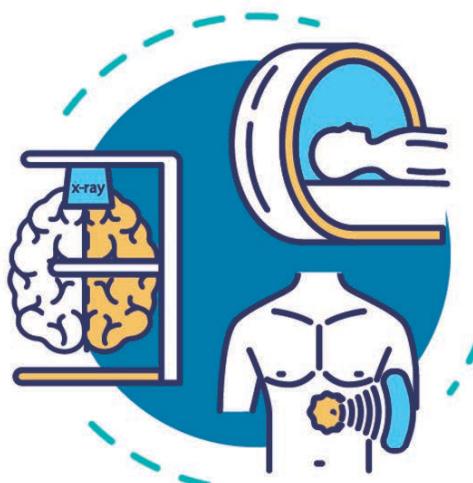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김한\* 회원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항상 방사협보 잘 챙겨보고있습니다. 퀴즈 이벤트도 매번 재미있게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1등 당첨이 돼서 너무 놀랐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방사협보를 보면서 느끼지만 방사선사의 권익을 위해 애써주시는 대한방사선사협회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정보와 다양한 소식들로 방사선사선생님들과 소통할수 있는 매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감사히 잘쓰겠습니다. \_부지\*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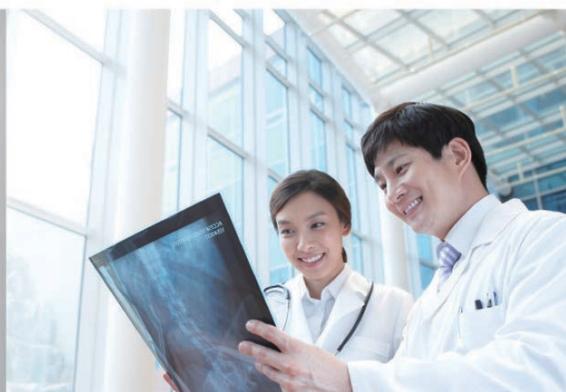
<방사협보>는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원의견을 보내주시면 의견을 반영하여 더 좋은 소식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Jeju 2023년  
전국방사선사  
제주춘계학술대회

일시\_ 2023. 4. 21.(금) ~ 4. 23.(일)

장소\_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 JEJU)



새로운 미래, 도전하는 방사선사!

New future, Challenging Radiological Technologists!

주최 :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주관 : (사)대한방사선사협회

후원 : Jeju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컨벤션뷰로